

www.peaceone.org

평화누리 통일누리

2020년 12월 Vol.200

현안 2021년 국방예산 문제점 시리즈
청와대 안보실에 보내는 사드 질의서
부산시 주둔 미군 관련 조례제정 경과와 의미

청년 2020청년평화아카데미 소감 모음

200호 특집

「평화누리통일누리」에 대한 쓴소리 단소리
101호~199호 회지 순서모음



2020년 12월 통권 200호

평화누리 통일누리

평화누리 통일누리 200호(2020년 12월 호)를
맞아, 101호부터 199호까지의
회지를 모아 사진을 찍다.
사진 : 박하영



[현안]

- 01 2021년 국방예산 문제점 시리즈 ① 서론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방예산, 대대적인 삭감이 필요하다! / 고영대
- 06 2021년 국방예산 문제점 시리즈 ② 방위비분담금
정부는 불법적인 방위비분담 집행 중지해야 / 박기학
- 11 청와대 안보실에 보내는 사드철폐평화회의 의견 및 질의서 / 평화·통일연구소
- 33 "부산광역시 미군주둔지역 등 안전/환경사고 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도용희

[청년]

- 36 2020청년평화아카데미 소감모음

[200호 특집]

- 39 「평화누리통일누리」에 대한 쓴소리 단소리
- 44 101호~199호 회지 순서모음

[지역소식]

- 72 광주 / 광주전남 / 논산 / 군산 / 대구 / 부산 / 서울 / 보령 /
성남용인 / 순천 / 익산 / 인천

[회비와 후원금]

- 78 감사합니다

[결산보고]

- 80 2020년 11월

[2021년 국방예산 문제점 시리즈 ①]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방예산,
대대적인 삭감이 필요하다!**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국방예산이 2020년에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2007년도 24조 6,967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이 불과 14년 만에 2배로 뛴 것이다. 2021년도 국방예산은 52조 8,401억 원(전력 운영비 35조 8,437억 원, 방위력개선비 16조 9,964억 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2조 6,874억 원(5.4%)이나 오른 것이다.

반면에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공의료에 책정된 예산은 고작 15억 원에 불과하다. 그뿐인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2조 6,800억 원에서 올해는 1조 3,728억 원(78만 명 지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되었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로 1988년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고용유지와 민생 안정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증강에는 한없이 너그럽다.

한국군의 군비증강 실태를 보고 있노라면 숨이 가쁠 정도다. 북한 위협, 주변국 위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명분으로 한 전력증강 속도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그러나 북한과 주변국 위협을 명분으로 한 남한의 군비증강은 타당성이 없다. 과장된 안보 위협 평가에 기초한 초공세적인 군사전략 수립과 공세전력 도입, 과도한 군비확장은 군비경쟁을 격화시켜 도리어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으로 비화되어 민족 공멸을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상투적인 북한 및 주변국 위협 부풀리기와 국방예산 팽창

북한의 잠재적 전쟁수행능력과 국방비가 남한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열세라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은 이미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공격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오히려 남한의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공격이 가능할 정도로 절대 우위에 있다. 이에 정경두 전 국방장관도 “핵을 제외한 모든

재래식 군사 분야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2020.9.15.)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한의 첨단 고성능 재래식 전력은 북한의 핵전력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다. 그런데도 남한의 첨단 고성능 공세전력의 도입이 계속되고 국방예산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국방예산 확보와 몸집 불리기로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려는 국방부와 군의 상투적인 북한 위협 부풀리기에서 비롯된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 평가도 객관적이고 합당한 근거에 토대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육·해·공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침공 할 수 있는 승수를 갖추고 있지만 인도, 러시아, 베트남 등 16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대결하고 있어 남한과 무력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된다. 러시아는 재래식 전력에서는 남한을 무력침공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일본은 공군력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고 육군 전력에서는 남한에 크게 뒤지기 때문에 해군력 우위만을 갖고 남한을 무력침공 할 수 없다. 이에 주변국 위협 역시 국방예산 확보와 몸집 불리기,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에 편승하려는 국방부와 군의 자가 발전적 주장에 불과하다.

초공세전략 도입에 따른 국방예산 팽창

한미연합군의 군사전략은 북한 위협 부풀리기에 기초한 초공세전략으로 제동장치 없는 전력증강과 국방비 증액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미연합군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개념에 따른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한다는 초공세적 작전이다. 그러나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에 의거한 선제공격은 모험주의적이며 실효성은 없이 고비용만 초래한다.

대북 선제공격은, 설령 제한적인 핀포인트 공격이라고 해도, 필히 전면전으로 비화된다. 북한이 이미 남한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 보복할 수 있는 핵과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건에서 대북 선제공격은 남북한의 모든 생명과 자산, 미일의 일부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하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한미가 제아무리 대북 정찰능력을 강화해도 산악지대 등을 이용해 은폐·엄폐되어 있는 고정식 발사대와 수백 대에 달하는 이동식 발사대를 모조리 탐지해 발사 전에 파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북 선제공격은 또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전략이다.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을 실행하기 위한 이른바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도입에 2019~2023년 동안 32조 원, 2021년도에만 5조 8,070억 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안보환경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을 고집할 경우 앞으로 고성능 첨단무기 자체 개발과 미국산 고성능 첨단 무기 도입에 들어가게 될 비용이 얼마가 될지 산정조차 어렵다.

최첨단 고성능 초공세무기 도입에 따른 국방예산 팽창

2021년도 방위력개선편비(무기도입비)는 16조 9,964억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대북 선제공격용 첨단 고성능 무기체계 도입에 사용된다. 공군의 F-35, KF-X, 해군의 항공모함, 중형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육군의 KTSSM(전술지대지유도무기), 현무-2 탄도미사일, K-2 전차, 대형 공격용 헬기, 해병대의 상륙기동헬기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벅찰 정도다. 2021년에 이들 선제공격 무기도입을 위한 예산만 F-35A 1조 2,083억 원, 중형잠수함 5,258억 원, K-2 전차 3,094억 원 등 4조 1,660억 원에 이른다.

최첨단 고성능 공세무기 도입은 국내 개발이든 외국산 구매든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이 들 어갈 뿐만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막대한 운영유지비가 들어가며 부품과 기술 도입, 정비 과정 등에서 외국(미국과 일본 등)에 종속된다. 국내개발 중인 KF-X 사업 예산은 무려 18조 원에 이르며 운영유지비에 얼마가 소요될지 가늠조차 어렵다. F-35A는 40여 대의 도입 비용으로 8조 원, 운영유지비는 무려 40~8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10년~20년 후엔 국방예산 대부분을 고성능 첨단무기 운영유지비에 쏟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군체제 유지에 따른 국방예산 팽창

2021년도 국방예산 중 병력유지비(인건비)는 20조 5,800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39%를 차지한다. 인건비 비중이 이토록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군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주된 원인의 하나다. 50만 명이 넘는 대병력을 유지하는 한 저비용 고효율의 정예군으로의 탈바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국방개혁 2.0이 병력감축의 최종 목표를 50만 명(상근예비역을 포함하면 51.6만 명)으로

높여 잡고 있는 것은 인민군 격멸, 북한 체제 붕괴와 점령이라는 초공세적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병력, 특히 육군 병력을 유지하려는 데서 기인한다.

지상군 작전사령부(지작사)의 창설(2019.1)은 애초에는 군단을 지휘만 하는 구조로 계획되어 예산 절감과 인력감축이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를 낳고 있다. 지작사는 8개 군단, 지상정보단, 화력여단, 공병단, 정보통신여단, 군수지원사령부, 2개 향토사단, 근무지원단 등 육군 병력의 ¾을 거느리는 한국군 사상 초유의 초대형 공통부대가 되었다. 지작사의 몸집 불리기도 초공세적 대북 중심작전 수행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군이 군단과 사단 수 감축에는 매우 소극적인 반면에 특임여단(참수부대), 신속대응사단, 화력여단, 지상정보단을 속속 창설하고 있는 것도 대북 초공세적 전략에서 비롯된다.

국방예산의 대미 종속성에 따른 예산 팽창

국방예산이 비효율성을 면치 못하는 요인 중 하나는 국방예산의 대미 종속성 때문이다. 2021년도 전력유지비(15조 2,637억 원) 중 주한미군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을 포함해 주한미군시설부지지원, 카투사 인건비 등 1조907억 원이다. 특별회계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비로 7,398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또한 전력유지비에는 한미연합사 유지비용 112억 원을 포함하여 해외파병, 한미연합연습 및 해외연합훈련에 919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군수지원 및 협력 분야 외화예산은 15억 달러(1조 8,150억 원)로 그 중 약 80%는 한국군 장비를 미국에서 정비하는 비용 등으로 미국을 위한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을 모두 합치면 총 3조 3,74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력유지비의 무려 22%에 해당한다.


주한미군과 미국을 위해 쓰이는 막대한 예산은 한국군 부대 운영과 교육훈련, 장비정비 등에 쓰일 예산을 축내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2021년도 방위력개선투자 중에서 미국산 무기도입 비용만 약 3조 원에 달한다. 국방예산의 이런 대미 종속성도 결국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미 증원군에 크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초공세적 대북 군사전략과 작전이 원인이다.

미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 본토 방어에 한국군 동원 가능성과 국방예산 팽창

2021년 방위력개선비에는 한국군의 역외/원양작전을 위한 전력 구축비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항공모함, 대형 구축함, 중형 잠수함,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등이 대표적인 무기체제다. 2021년도에 이들 무기도입을 위해 배정된 예산만 1조 1,30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전력은 대북 방어에는 그다지 쓰임새가 없으며 한국군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대결에 동원되고 미국 방어를 위해 쓸 무기체제들이다. 대표적인 역외·원양작전 전력인 항공모함 도입비는 함재기(F-35B) 5조 원을 포함해 최소 8조 원을 상회한다. 해군이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SM-3 요격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최소 100km 이상으로 남한 방어용이 아니며, SM-3 Block II A는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제로 1발 당 가격이 무려 325억 원에 달한다. 한국군이 미중 대결과 미국 방어에 동원될 무기체제를 도입할수록 한국 안보는 그 만큼 더 위태로워진다.

초공세전략을 방어전략으로 전환해 국방예산 삭감과 평화체제 구축의 길을 열어야!

(핵)선제공격은 헌법과 유엔헌장에 위배된다. 헌법 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도 유엔헌장도 선제무력공격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연히 대북 선제공격을 표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및 작전계획 5015는 위헌이자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군의 초공세전략을 합리적 방어 충분성에 따른 방어전략으로 전환하면 비대한 군조직을 슬림화해 20~30만으로 대폭 감축과 정예군화가 가능하다. 한국군 무기체제도 최첨단 고성능 하이급 대신 미디엄급 무기체제로 바뀌고 과잉 전력을 감축할 수 있다. 그 결과 전력운영비(병력운영비·전력유지비)와 방위력개선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방예산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국가경제와 민생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2021년 국방예산 문제점 시리즈 ②]

정부는 불법적인 방위비분담 집행 중지해야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법적 근거 없는 올해 방위비분담 예산집행

방위비분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법적 근거 없이 방위비분담 예산을 편성하고 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대부분 집행해 버린 것이다. 2020년 1월부터 적용되어야 할 특별협정이 미체결인데도 정부는 2020년 방위비분담 예산으로 1조 389억 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6102억 원을 2020년 11월 말 현재 집행했고, 연말까지 집행액은 7603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한겨레, 2020.12.7).

1991년 이래 올해처럼 특별협정이 미체결 상태에서 한 해의 방위비분담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해버린 것은 전례가 없다. 방위비분담 협정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다 해버린다면 협정이 굳이 왜 필요한가, 또 국회의 조약비준동의권이 헌법(60조 1항)에 규정될 필요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국방부)는 강은미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2020.11.26)에서 2020년 및 2021년 방위비분담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따랐고, 2020년 방위비분담 예산 집행은 10차 특별협정 제7조를 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시하는 근거들은 국방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국방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고 헌법의 국회 예산심의·확정권과 조약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불법임을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된다.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올해 및 내년도 방위비분담 예산 편성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서 매년 각 부처에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보한다. 기재부의 지침은 “국제부담금은 이를 명시한 협정서가 있거나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또는 장·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만 반영”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인 노동자 인건



비 또 군사건설비 중 현금으로 미국에 지급하는 설계감리비가 국제부담금에 해당된다. 이들 국제부담금은 미국과의 협정서에 의해서 한국이 부담할 의무를 지는 돈이다. 그런데 ‘협정서’ 즉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2020년 및 2021년 방위비분담 예산(각 1조389억 원)을 편성한 것은 기재부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각 부처가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1조 위반이다.

국무회의가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국방부의 방위비분담 예산요구서를 그대로 수용해 정부안으로 확정된 행위 역시 정부 자신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므로 불법이다. 정부가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미체결인 상태에서 국회에 2020년 및 2021년 방위비분담 예산을 제출한 것은 국회에 법적 근거 없는 예산심의를 요구한 것으로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속에서 불법적으로 편성된 2020년 및 2021년 정부의 방위비분담 예산안을 의결한 국회의 행위도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며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2020년 방위비분담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한 것도 불법이다

11차 특별협정이 미체결 상태에서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0년 방위비분담 1조389억 원의 배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를 배정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방위비분담 예산을 배정하고 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한 것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월권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다. 방위비분담금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므로 해당되는 조약은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예산의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방부의 방위비분담 예산 집행은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조약비준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올해 예산 집행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특별협정을 왜곡하는 국방부

국방부는 다년간 군사건설사업의 경우 특별협정이 종료돼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10차 특별협정 제7조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해석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다. 10차 협정 제7조는 “협정의 종료는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10차 협정(적용연도는 2019년)의 방위비분담금 합의액 1조389억 원의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조항이다. 만약 이 조항이 협정액 1조389억 원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한국이 군사건설과 군수분야 사업비를 보장하는 조항이라면 이는 10차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10차 협정 7조는 2019년 군사건설 및 군수분야 예산(5384억 원) 중 2020년으로 이월된 예산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협정 7조에 따라 2020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된 184억 원 이내여야 한다.

국방부의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를 보면 군사건설예산 3710억 원 가운데 다년간 계속 사업비는 3116억 원이다. 만약 국방부 주장대로 10차 협정 제7조를 해석하면 11차 협정의 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은 10차 협정 제7조에 따라 2020년에 3116억 원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한다. 즉 10차 협정의 방위비분담 합의액은 1조389억 원이 아니라 거기에 3116억 원을 더한 1조3505억 원이 되는 것이다. 국방부가 자신의 주장대로 10차 협정 제7조에 따라 2020년 11월말까지 군사건설과 군수지원비로 2962억 원(11월까지 집행액 3146억 원 중 이월액 184억 원을 제외한 집행액)을 집행했다면 이는 10차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적 개념까지 만들어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국방부

국방부는 2020년도 군사건설 집행액 1,977억 원(7월말기준)의 법적인 근거를 묻는 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2020년 10월 7일)에 대해서 “과거 한미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통해 지급을 약속한 현물군사건설 사업의 미집행 현물지원분을 동 협정 제7조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2019년 12월 말 현재 ‘미집행 현물지원분’(군수분야 미집행 현물지원분 포함)이 9079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말하는 ‘미집행 현물지원분’이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근거를 둔 법적 용어가 아닌, 국방부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제3조)은 “연도 말에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이행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당사자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로 되어 있다. 10차 협정에 따르면 미집행 현물지원분이란 해당연도에 편성된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예산 즉 **이월액**을 가리키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된 184억 원이 미집행 현물지원분의 전부다. 미집행 현물지원분이 9079억 원이라는 국방부 주장은 터무니없다.

10차 협정 제3조에 비추어보면 국방부가 말하는 ‘미집행 현물지원분’이란 개념은 협정 상 근거가 없는 임의적 개념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9079억 원에 이른다는 ‘미집행 현물지원분’의 연도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집행 현물지원분’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개념을 동원해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집행한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국방부가 말하는 ‘미집행 현물지원분’이 법적인 근거가 없고 국가재정법에도 배치되는 개념이라는 것은 ‘미집행 현물지원분’에 불용액(세계잉여금)을 포함시키는데서도 드러난다. 불용액이란 사업을 정상대로 수행하고 남은 잔금을 말한다. 쓰고 남은 돈인 불용액은 국가재정법 상으로 국고로 환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불용액을 미국에 추후 보전해 주어야 할 ‘미집행’된 돈으로 보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어기는 것이다.

국방부는 특별협정 상의 방위비분담금보다 줄여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생긴 차액(이른바 감액분, 협정액-예산편성액)도 ‘미집행 현물 지원분’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역시 국방부의 ‘미집행 현물지원분’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그저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고안된 개념임을 보여준다. 감액분은 8차 및 9차 특별협정 상 합의액 대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 하에 미국의 결정으로 예산을 줄여 편성한 것이다. 이는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 계획이 없는 것을 저희가 지급을 안 한 것”(2013년 6월 14일 국회답변)이라는 김관진 국방장관(당시)의 답변에서도 확인된다.


쓸 수 없는 돈, 사용처가 없는 돈, 과거 협정의 유효기간도 지나 지급할 의무도 없는 돈을

미국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협정상 근거도 없고 국가재정법과도 배치되는 용어(미 집행 현물지원분)를 임의로 만들어 내는 국방부의 태도는 우리 국민의 부담은 안중에 없이 미국 이익 보장에 안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불법 편성된 예산을 집행한 국방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의 행위는 특가법 대상이다

국방부가 10차 특별협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해서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을 보장해준 것은 배임으로 제3자(미국)에게 부당한 이득을 준 것이므로 형법 355조(횡령·배임)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이 배임으로 최소 2962억 원의 국고손실을 끼친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1항(국고손실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 기재부 장관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국방부의 예산편성을 승인하고 예산을 배정까지 함으로써 부당하게 미국에게 이익을 주고 국고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항의 죄를 범한 것이다. 국정원장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 국정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게 해당한다고 보고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와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2019. 11. 28)도 있다.

정부는 불법적인 예산 집행을 중지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방침을 백지화해야

2016~2019년 사이에도 방위비분담금이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돼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될 돈이 수천 억 씩이 낭비되고 있다. 연간 이월액과 불용액, 감액분을 합치면 2016년 1139억 원, 2017년 1215억 원, 2018년 987억 원, 2019년 263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평택미군기지 건설비나 사드기지 공사비로 불법 전용되는 방위비분담금은 연 평균 1778억 원이다. 또 주일미군 장비 정비비(연평균 191억 원)도 특별협정 위반으로 우리가 줘서는 안 되는 돈이다. 최근 4년간의 방위비분담금은 연평균 2870억 원 씩 낭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협정 왜곡과 불법을 자행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용어까지 동원해서 안 줘도 될 돈, 줘서는 안 될 돈을 미국에 지급하고 있는 국방부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매년 수천억 원씩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의 집행 실태에 비추어 볼 때 11차 협상에서 향후 5년간 13%+ α 를 보장해 주겠다고 나서는 정부의 태도도 기가 찰 따름이다.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 13%+ α (매년 추가 인상분)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백지화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은 애초부터 한국이 줄 필요가 없었고 줘서도 안 될 돈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폐지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꿔내야 한다. 

[청와대 안보실에 보내는 사드철회평화회의 의견 및 질의서]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는 미 본토 방어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작성 : 평화·통일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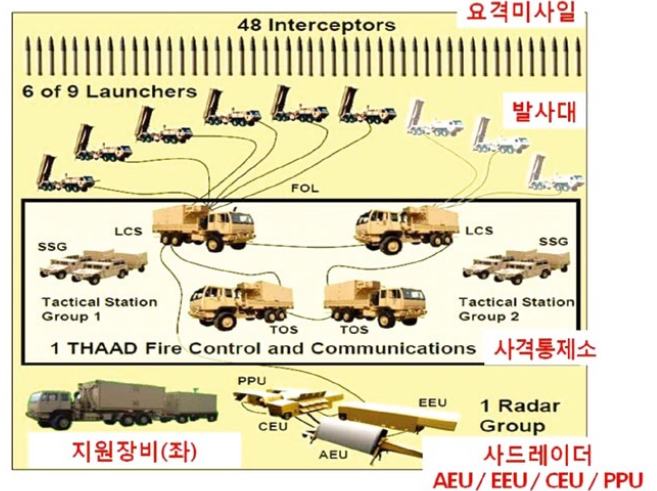
1.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는 배치 직후부터 성능개량을 해왔으며, 그 목적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영하며,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다.

-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는 배치를 완료한 직후인 2017년 12월부터 C2BMC를 비롯한 성능개량을 계속해왔다(미 GAO 보고서, 2019. 6.).
- C2BMC는 “미국의 BMDS(Ballistic Missile Defence System)의 모든 MD 요소를 통합시키는 하드웨어(워크스테이션, 서버, 통신 장비)와 소프트웨어”(미 GAO 보고서, 2020. 7.)로 미 전략사령부의 전략지휘통제를 보장하는 통신체계다.
- C2BMC에 통합되어 미 전략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는 미 MD 체계는 AN/TPY-2 사드 레이더를 비롯한 모든 지상, 해상, 항공, 우주 배치 센서와 함께 GBI, Aegis, Aegis Ashore, THAAD 등 패트리엇을 제외한 모든 요격체계를 아우른다. THAAD 요격체계는 미국 방어에 직접 기여할 수 없으나 THAAD 레이더가 미국 방어에 직접 기여하기 때문에 C2BMC에 통합되어 미 전략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도 C2BMC에 통합되어 미 전략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는 배치를 마치자마자 C2BMC의 소프트웨어를 Spiral 6.4에서 Spiral 8.2-1/BOA 5.1로 성능을 개량하였다. 이 성능개량으로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는 BOA 5.1을 이용해 위성 탐지정보를 받아 미국을 겨냥하는 북중 ICBM을 초기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하였고, 일본 배치 사드 레이더(AN/TPY-2)나 태평양 미 이지스 레이더(AN/SPY-1)와의 정보 통합으로 ICBM에 대한 추적 능력을 개선했으며, 해상도 높은 사드 레이더의 탐지, 추적정보를 태평양 미 이지스함과 미 본토 배치 GBI 체계에 전송함으로써 미국을 겨냥한 ICBM에 대한 요격 횟수를 늘리고 정확성을 높이는 등 요격 확률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사드 체계 5대 구성 요소



사드C2BMC



- 2019년 6월에는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의 C2BMC가 Spiral 8.2-3/BOA 6.1로 성능개량되었는데, 이 성능개량으로 태평양 배치 이지스함은 사드 레이더의 추적정보를 이용해 이지스 BMD의 원거리 교전(EoR)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지스 체계의 방어범위를 5~7배나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주한미군은 소성리 사드의 기존 GPS 안테나를 신형 PNT 안테나로 교체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소성리 사드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을 전제로 한 교체로 여겨진다. PNT는 위치, 항법, 시각을 가리키는 영어 약어로 미 국방부 모시계(master clock)와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의 시각(regional clock)과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미 본토를 겨냥한 ICBM을 요격하는 데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지역 시각과 미 본토 시각과의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식별, 요격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를 종말모드로 운용한다면 굳이 미 국방부의 모시계와의 시각차를 보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또한 2020년 5월 29일,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부지에 반입되어 기존 EEU와 교체된 신형 EEU와 발전기도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체로 보인다. EEU는 C2BMC와 사드 안테나를 연결해 주는 통신센터로서 역할을 한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를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12기의 사드 레이더의 EEU를 모두 신형 EEU로 교체 중에 있으며, 신형 EEU로의 교체는 바로 성능 개량된 C2BMC와 안테나의 성능 구현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종말모드로 운용해야 할 주한미군 사드까지 전진배치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EEU를 배치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소성리 사드 레이더의 EEU를 신형 EEU로 교체한 것은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미 레이시온사는 EEU의 신형 x86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구형보다 5배의 처리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성능 개량된 안테나의 탐지, 추적정보를 신속히 분석 처리해 이를 C2BMC로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 발전기 교체는 안테나와 EEU의 성능이 개량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는데 따라 보다 증대하게 될 전력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성능개량은 미 본토 방어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 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주한미군이 현재 추진 중인 긴급작전요구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긴급작전요구의 일환(FY2021 MDA 예산설명자료)이며,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긴급작전요구는 지역 차원에서 상층방어체계(사드, 이지스 BMD)와 하층방어체계(PAC-Ⅲ MSE)의 통합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는 주한미군 MD 체계가 남한 방어를 위한 독자적 체계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MD 체계의 하위체계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임무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또한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미 미사일방어청과 육군의 지상시험(GT-18 Sprint 1, 2018. 4./GTI-19 Sprint 2, 2019. 6./8.)은 C2BMC Spiral의 6.4 에서 8.2-1/3으로의 성능개량 검증과 그 기반 하에서 진행된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2/3단계 아키텍처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에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CX-2.1.1/CX-3.0)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주한미군 사드가 전, 평시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 C2BMC와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성능개량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2017. 11. 29.)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수소폭탄을 장착한 북한의 ICBM이 언제라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ICBM(중국의 ICBM도 포함해)의 공격에 대비해 서둘러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성능개량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 질문 1 】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를 한순간이라도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는 것은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들여왔다고 주장한 한미 군 당국의 한국민에 대한 기망입니다. 종말모드와 전진배치모드 간 운용 비율을 비롯한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운용 실태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만약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전적으로 종말모드로 운용되고 성능개량도 이를 위한 것이라면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사드 성능개량 사실을 적극 알려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다 잘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오히려 주한미군 사드의 성능개량을 극구 부정하고 감춤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사드 성능개량이 주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을 지원하는 데 있고, 이에 따른 중국 등과의 관계 악화와 보복을 우려해 사드 성능개량을 부정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의 성능개량을 사실대로 밝혀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2.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과 이의 탐지, 추적, 식별 능력 향상은 미중 간 전략안정을 파괴하고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은 중국의 ICBM을 무력화함으로써 미중 간 전략안정을 훼손한다. 그 가능성은 미국의 과학자연맹이 이미 오래전(2011. 9.)에 논증한 바 있다. 중국이 보유한 ICBM은 약 50여 기로, 미국이 GBI와 SM-3 Block 2A 이지스 요격미사일을 500여 기만 갖추면, 10%의 요격률을 가정할 경우, 중국의 ICBM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현재 미중 간 핵전력은 6,185기 : 290기로 미국이 일방적 우위에 있어 전력균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 수준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핵선제공격으로부터 중국의 핵전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춘 1980년대 이래로 미국과 전략안정을 이루고 있다.
- 그러나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가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고 지금과 같이 C2BMC와 사드 레이더를 중심으로 하는 성능개량을 거듭하면 할수록 중국의 대미 전략안정이 훼손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 미중 정상회담(2016. 4. 1.)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드 한국배치가 “지역의 전략안정을 훼손한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사드가 가져올 미중 전략안정의 훼손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과 탐지, 추적, 식별능력의 개량으로 미중 간 전략안정이 위협받게 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은 지금까지의

경제적 보복을 넘어서 군사적 보복으로까지 확장됨으로써 한국 안보는 북한 위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위협을 받게 되며, 미국의 전초기지로서 남한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 만약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해 전략안정의 훼손을 막고자 한다면 이는 세계적 차원의 핵군축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이에 한국 안보를 위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주한미군 사드의 성능개량과 전진배치모드 운용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안보적 차원의 감시체계가 갖추어지고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미국은 대중 절대우위의 전략지형 구축을 위해 아태지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집요한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만약 남한에 미국의 전략무기로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이어 또 하나의 전략무기이자 공세성이 훨씬 강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배치된다면 중국의 반발은 훨씬 강도가 세질 것이며,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국의 둘도 없는 전진기지로서의 남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위협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 질문 3 】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에 따른 미중 간 전략안정 훼손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한중 간 군사적 대결과 위협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를 막는 방안은 주한미군 사드를 철수시키거나 최소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는 것을 막는 길뿐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4 】 주한미군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사드를 훨씬 능가하는 한국의 안보 위협과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남한 배치를 허용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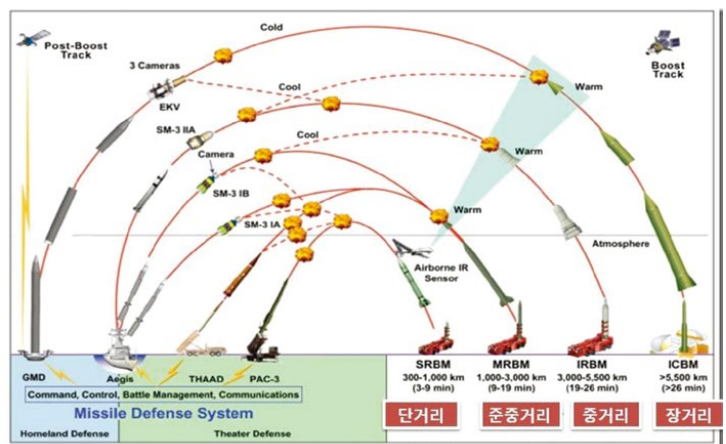
3.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를 통한 미국 절대우위의 미중 간 전략지형 구축은 주한·주일미군 사드 레이더를 축으로 한 한미일 3각 MD와 이를 매개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나아가 아태지역 집단방위(집단군사동맹, 콰드 플러스)의 구축으로 동아시아판 신냉전체제를 형성함으로써 비로소 완결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MD는 미국 MD에 완전히 통합/편입된다.

-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동북아 신냉전체제 도래의 신호탄이다.
- 미국은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한미일 3각 MD 구축을 꾀한다. 현재도 주한·주일미군 MD 체계는 우주 배치 센서의 지원을 받은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탐지, 추적정보와 역시 우주 배치 센서의 지원을 받는 일본 샤리키와 교가미사키 배치 AN/TPY-2 레이더의 탐지, 추적정보가 C2BMC를 경유하거나 P2P로 통합되고, 이들 정보가 C2BMC를 경유해 주한·주일미군 MD 체계 구성요소에 전송되는 등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주한미군 MD 체계는 한국군 MD 체계와 주일미군 MD 체계는 자위대 MD 체계와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일 MD 체계는 주한·주일미군 MD 체계를 매개로 해 이미 하나로 연동되어 있는 것과 같다.
- 따라서 한미일 3각 MD 체계 구축은 한일 MD 체계를 직접 연동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한일 MD 체계를 연동시키기 위한 한미일 3국군의 시도는 수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2016년부터 매년 수차례에 걸쳐 실시되어 오고 있는 태평양 드래곤 한미일 연합 MD 훈련은 한일 MD 체계 간 직접 연동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태평양 드래곤은 남해와 태평양 등에서 장소를 달리하여 실시되었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 GSOMIA) 체결로 이어졌다. 한일 간 MD 정보를 직접 공유하게 된 것이다.
- 한일 MD 정보 교환은 한일 MD 연합 작전의 수행을 전제로 한다. 태평양 드래곤 한미일 연합 MD 훈련 자체가 미군을 매개로 하는 한일 MD 연합 훈련이다. 나아가 한일 GSOMIA 체결 직후 한국 국방부가 한일 이지스함 간 직접 연동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국방부 정례브리핑, 2017. 3. 14.)도 한일 MD 체계 간 직접 연동과 한일 간 연합 MD 작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정부 간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한일 GSOMIA의 종료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미일 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요하게 한일 MD 체계의 직접 연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국가별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사드와 이지스 체계 간, 이지스와 이지스 체계 간, 사드와 패트리엇 간 P2P 방식의 직접 연동이 구현되면 한미일 3각 MD는 한 단계 더 완성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 역시 시간문제로 보인다.
- 한미일 3각 MD 구축이 한미일 연합 MD 작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유사 시 한미 연합 MD 작전은 오산 기지 내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로, 미일 연합 MD 작전은 요코다 기지 내 공동통합작전조정센터(BJOCC)로 미 육군 제94 방공 및 유도탄 방어사령부(AAMDC) 전방지휘소가 전개되어 한미, 한일 MD 작전을 전술 지휘 · 통제함으로써 미 인도 · 태평양 사령부가 한일 MD 체계를 통합 작전 지휘 · 통제한다. 한미일 3각 MD 연합 작전도 한일 간 직접적인 MD 작전 수행이 핵심이다.
- 한일 이지스 체계 간 직접 연동을 꾀하는 한일 군은 MD 정보의 직접 공유를 넘어 태평양 드래곤 한미일 연합 MD 훈련에서 미일 이지스함이 연합 MD 요격작전까지 수행하듯이 한국군 이지스함이 요격미사일을 장착하면 한일 연합 MD 요격 작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일 이지스함 간 연합 MD 요격작전은 정치적 장애물만 없다면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난관이 없다. 한일 MD 체계의 직접 연동을 통한 한일 간 연합 MD 작전은 이지스 체계를 이용한 자국 방어의 명분으로 전면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한미일 3각 MD의 구축을 앞당기고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한 한미일 3각 MD가 완성된 후 한미일 3각 MD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 C2BMC의 지속적인 성능개량과 진화는 관건적 요소다.
-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 정보는 물론 한국군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 레이더 정보, 한국이 SM-3 Block- I A · B/ II A 요격미사일을 도입하면 이지스 요격체계까지, 일본 배치 AN/TPY-2 레이더 정보는 물론 자위대의 이지스 레이더 정보 및 요격체계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복무하도록 하는 데서, 아울러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될 한일 이지스 체계 간 정보 공유와 연합 요격작전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서 미 C2BMC의 성능개량은 미 MD 체계의 성패를 가르는 사활적인 과제로 되기 때문이다.
-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후 노골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북중 ICBM 요격을 일본 자위대의 미일 집단자위권 행사의 한 유형으로 예시하였듯이 한국군 이지스 요격체계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중 · 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ICBM) 요격에 동원되는 것이 현실로 될 수도 있다.
- 특히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일본 배치 AN/TPY-2 레이더보다 북중 ICBM에 대한 해상도 높은 탐지, 추적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한국군 그린파인 레이더나 서해 해상 배치 한국군 이지스 레이더가 동, 남해에 배치된 미일 이지스 레이더보다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를 겨냥한 북한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도 높은 탐지, 추적정보를 조기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C2BMC에 한국의 그린파인 레이더나 이지스 정보·요격체계까지 통합시켜 직간접으로 지휘·통제하려는 시도는 한미일 3각 MD 체계의 구축에 대한 미일 양국의 바람의 출발점을 이룬다.

- 그렇지만 미 CRS 보고서(2015. 4.)가 한미일 통합 BMD 체계는 “한국에는 별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주일미군 MD 체계나 자위대의 MD 체계, 나아가 양자 통합 MD 체계가 남한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일 통합 MD 체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중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이 짧아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
- 한국군 MD 체계와 주한미군 MD 체계의 연동은 한미일 3각 MD 체계 구축의 전제가 되며, 이 과정에서 한국 MD 체계는 미국 MD 체계에 깊숙이 편입된다.
- 한국 MD 체계의 미 MD 체계 편입은 이미 정보·요격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구현되고 있다.
- 2012년 10월 28일, 한국 국방부는 한국 MD 체계의 미국 MD 체계 편입 기준으로 미국의 사드 X-밴드 레이더 배치 등 3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같은 시기 미 국방부 캐슬린 히스 정책담당 수석 차관보도 한국 MD 체계의 미국 MD 체계 편입 기준으로 사드 레이더 배치를 제시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사드 레이더의 북중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정보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기여함으로써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 기준이 충족된 것이다.
- 한미 양국이 MD 연동 합의각서를 체결(2016. 1.)해 한국군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탄도탄 작전통제소(TMO-Cell)를 연동시키기로 합의하고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주한미군 연동통제소(JICC) 간 연동을 완료(연합뉴스, 2017. 5. 17.)한 것 또한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한국군은 항공우주작전센터(KAOC)의 장비를 성능개량하고, 전술데이터링크를 Link-16으로 업그레이드해 이를 2025년까지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PAC-III, 이지스함 등에 구축할 예정이다.
- 한국군 MD 체계와 주한미군 MD 체계 연동으로 한국군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 레이더가 획득한 북·중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정보가 미국 MD 체계에 전송되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기여한다면 이는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 기준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 유사시 한미 간 ‘연합 방공 및 유도탄 방어 작전 협조본부(CAMDOCC) 운영 절차에 관한 합의서’(2012. 4. 12. 체결, 2013. 11. 8. 개정)에 따라 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센터(KAOC) 내 한미연합 방공 및 유도탄 방어 작전 협조본부로 미 육군 제94 방공 및 유도탄 방어사령부(AAMDC) 전방지휘소가 전개되어 한미 통합 MD를 전술 지휘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담보한다. 이는 작전적 차원에서도 한국 MD가 미국 MD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실제로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최근 한미 군 당국이 양국 MD 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동아일보, 2020. 6. 10.). 이 훈련에서 한미 양국군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탐지, 추적정보를 교환하고 한국군 MD, 주한미군 MD, 해외 미군 MD 요격자산을 통합해 대응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 MD가 요격과 작전분야까지 이미 미국 MD에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국방부가 한미 양국 MD 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 실시를 공개한 것 자체가 최초의 일이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타격(요격)은 따로 한다(2014. 6. 4.)”며 요격부문에서 한국 MD의 미 MD 편입 사실은 부정했다. 물론 한국 MD 레이더가 탐지, 추적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고, 그 정보가 한국 방어가 아닌 태평양 미군 방어와 미 본토 방어에 기여한다면 그 자체로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으로 된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가 한미 MD 요격자산을 통합 운용한다고 밝힘으로써 한국 MD의 미 MD 편입이 확장되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것이다.
- 한미 양국군 MD 체계의 연동과 통합 수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군 패트리엇 체계가 주한미군 패트리엇 체계와 상호 연동되는 가운데 연합 탄도탄방어작전계획에 따라 유도탄 적재장비 교환 운용 훈련, 연합 요격 훈련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미 패트리엇 체계의 대대급 “교전통제소(ICC, Information Coordination Center) 간 상호 연동 훈련”을 통해서 “포착한 항적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동일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을 방지”(국방일보, 2015. 7. 15.)하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국방일보, 2017. 4. 24.)

통합 운용되고 있다. 나아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과 일본 주둔 패트리엇 장비와 병력을 “우리군 패트리엇 부대와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훈련도 진행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7. 4. 24.).

- 주한미군 패트리엇 부대가 PDB-8 운영체제와 패트리엇 MSE탄을 도입해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2단계(패트리엇 LoR), 3단계(사드 체계 내 패트리엇 통합)를 구현 중에 있듯이 한국군 패트리엇 부대도 이미 PDB-8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패트리엇 MSE탄을 도입 중에 있어 한국군 패트리엇 부대의 주한미군 사드 체계와의 연동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이용한 패트리엇 LoR(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2단계)의 시험 비행 성공(2020.10.1.)으로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2/3단계의 구현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 같다. 2단계 시험 발사(2020.2.20)에서 드러난 패트리엇 MSE 요격체제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오류가 시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렇듯 한반도 작전 전구에서 한미 양국군 간 MD 체계는 가장 상위 체계인 한미연합 방공 및 유도탄 방어 작전 협조본부(오산 항공우주작전센터)로부터 가장 하위 체계인 패트리엇 교전 통제소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 한미 연합 MD 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은 늦어도 2016년부터는 실시되어 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회의(2014)에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을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2015년에는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였으며, 2016년 2월에는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에 대한 서명을 마쳤다. 바로 이 이행지침을 반영한 작전계획 5015의 대북 핵·미사일 방어 계획과 지휘통제 절차에 따라 한미 연합 MD 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이 실시되어 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포괄적’이라는 용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MD 자산은 물론 미 본토 등 해외미군 MD 자산까지 동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본토와 해외미군 MD 자산까지 동원된다는 것은 한미 연합 MD 작전에 미국의 작전통제권(사격통제권)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실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북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뿐 미 MD 체계와는 무관하다”(국방부, 사드철회평화회의 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 2020. 3. 31.)고 주장한 바 있다. 비공개적으로 한미 MD 요격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연합 MD 요격작전까지 실시해 오면서도 마치 정보만 공유하는 것으로 거짓 답변을 한 것이다.
- 한국 MD와 주한미군 MD, 해외미군 요격자산까지 통합 운용되고 이를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가 작전·전술 지휘통제한다는 것은 한국 MD 체계가 미국

MD 체계의 하부체계로 깊숙이 편입되는,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이 최고단계에서 구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군 이지스함이 SM-3 요격미사일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해 준다면, 이는 한국 MD 체계의 미국 MD 체계의 편입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국방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 보도자료(2020. 8. 9.) 그림(5쪽)에서 한국군 MD 체계를 설명하면서 한국군 이지스함의 SM-3 요격미사일 운용을 기정사실로 쓰고 있다. 머지않아 이지스라는 미국 무기체계로 SM-3라는 미국산 요격미사일을 미군 사격통제하에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발사하는 최고 형태의 한미 MD 체계 통합의 구현을, 곧 최고 형태의 한국 MD 체계의 미국 MD 체계 편입의 구현을 현실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한미가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위기관리 대상에 미국을 포함시킨다면 한국군 이지스함이 SM-3 요격미사일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요격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는 더욱 확고히 한국군 MD 부대의 최고의 주된 임무가 될 것이다.
- 이렇듯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미국이 제공한 MD 무기체계, 한국 MD 정보 및 요격자산의 미국 MD 체계 전면 편입, 한국군 MD 부대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한 국가의 MD 체계가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깊숙이 미국 MD에 편입되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적어도 일본은 겉으로라도 자국 MD 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사격통제권)을 독자 행사한다. 나토 국가도 자국 MD 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사격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프랑스 등 일부 나토 국가들은 자국 산 MD 무기체계를 사용한다.
- 이에 한국 MD 체계와 주한미군 MD 체계의 통합과 한국 MD 체계의 미국 MD 체계 편입은 사실상 공식적인 선언만 남겨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한국 MD 체계 구축 불가와 한국의 미국 MD 체계 편입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한 이래로, 한국 역대 정권들이 비록 한국 MD 체계 구축에 나섰지만, 미국 MD 편입의 선언은 넘지 않았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한미 양국군이 야금야금 추진해 온 한국 MD 체계의 미국 MD 체계의 편입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용인, 천명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 한미일 3각 MD 구축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축으로 이어진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나토와 유사한, 아태지역 집단방위체제(군사동맹) 구축은 2차 세계대전 이래로 미국의 오랜 소망이었다. 그러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겪은 나라들이,

특히 한국이 식민지 종주국 일본과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민의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는 금기 중 금기에 해당한다. 바로 오바마 정권은 이와 같은 한일 간 역사적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MD 전문가이자 심복인 리퍼트를 한국 대사에 임명했으며, 그는 촛불시위의 와중에서도 한일 GSOMIA 체결을 성사시킴으로써 아태지역 집단방위체제 구축 전 단계로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에 거보를 내디뎠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이용해 한미일 MD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매개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 이에 미 의회 CRS 보고서(2015. 4.)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남한이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중국 편에 설 것인지를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또는 “보다 제도화된 (동북아) 지역 집단방위(군사동맹)의 전인차”라고 밝히고 있다. 미일은 한미일 3각 MD 구축으로 한국 MD를 미일 방어에 이용하려는 것과 함께 이를 촉매제로 삼아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정치·군사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다.
- 이미 체결된 한일 GSOMIA에 더해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까지 체결되면 한일군사협력은 정보, 작전, 군수 등 전 분야로 확장되어 사실상 군사동맹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 미중 군사적, 경제적 대결이 격화되어 가는 가운데 트럼프 정권은 콰드 플러스라고 하는, 나토와 같은 아태지역 집단방위체제(군사동맹) 구축을 제안하고 나섰다. 미·일·인·호를 기본 축으로 해 이를 새로운 국제기구로 출범시키고 시간을 두고 여기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 콰드 플러스는 나토가 과거에는 소련을, 현재는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하고 있듯이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콰드든, 콰드 플러스든 제도화되면 아태지역에서 콰드(플러스) 대 중국이라는 대결 구도가 정착된다. 이 구도가 과거 냉전체제처럼 제로섬의 대결을 벌이게 될지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지금보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대결이 더욱 격화되리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 더욱이 전력의 측면에서 보나 지정학적 조건으로 보나 콰드 플러스의 주축은 한미일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전략(2019)에서 미일동맹을 아태지역의 코너스톤으로, 한미동맹을 동북아의 린치핀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통한 한미일 3각 MD 구축과 한미일 (의사) 군사동맹 구축을 한편으로 하고 여기에 호주와 인도, 뉴질랜드를 결합시켜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군사동맹체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 한국이 여기에서 가담하지 않는다면 대중 포위체로서의 콰드 플러스는 반쪽짜리가 되고 만다. 반대로 한국의 가담이 중국에 주는 정치·군사적 타격은 매우 클 것이다.
- 미국이 콰드 (플러스)의 제도화 의향을 드러낸 시점을 전후해 양제츠와 왕위 등 중국의 고위 외교 담당 인사들의 연이은 방한도 콰드 플러스를 둘러싼 중국의 깊은 우려와 관심의 일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어쨌든 콰드 (플러스)를 집단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국의 참여와 관계없이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체제의 도래를 의미한다.
-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시작해 이를 통한 한미일 3각 MD 체계와 군사동맹 구축, 이의 콰드 플러스로의 확장은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전략안정을 크게 훼손시키고 미국 절대우위의 전략지형이 들어서게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취할 전략, 전술적 반발과 반격은 한반도 정세와 남한 정치, 군사, 경제에 실로 큰 충격을 줄 것이다.
- 이미 경험한 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보복과 대중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MD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약속은 한국 정부의 향후 행보를 구속하는 것으로 한국에 큰 파장을 던졌으며, 한국이 더 이상 한미동맹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 남한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서 발을 뺀다면 콰드 플러스는 구색을 갖추기 힘들 것이며, 그 결과 콰드 플러스 대 중국과의 대결도 상당한 정도로 완화될 것이다.
- 한일 군사전력은 비슷한 수준이나 일본은 방어전력 위주고 한국은 공세전력 위주라는 점에서 콰드 플러스가 중국에 주는 군사적 부담은 당장은 한국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문재인 정부가 대중 3불 정책을 지키는 것은 양국 간 정치적 신의를 지키고 경제적 보복과 군사적 대결을 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아태지역의 신냉전적 대결 구도의 도래를 늦추거나 완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주한미군 사드를 철수시킨다면 아태지역을 대결 구도에서 협력과 평화 구도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서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질문 5】 한일 이지스함 간 직접 연동 추진 상황과 연동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한일 이지스함 간 연합 MD 작전 실시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7】 한미 연합 MD 통합 및 연동 훈련 시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운용 모드가 종말 모드였는지 전진배치모드였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8】 한미 연합 MD 통합 및 연동 훈련 시 한국군 그린파인 레이더가 획득한 정보가 주한미군에 제공되며,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탐지, 추적정보가 한국군에 제공되는지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9】 한국 해군이 도입하고자 하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 기종과 수량, 시기 등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0】 한미 패트리엇 대대급 교전통제소(ICC)가 연동되어 한 체계처럼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표적 미사일에 대한 한미 패트리엇 체계 간 교전 분배와 우선순위 및 최종 교전 명령권은 한미 양국 중 어느 쪽이 행사합니까?

【질문 11】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 MD 전력에 대한 최상위 사격통제권은 한미 양국 중 어느 쪽이, 누가 행사합니까?

【질문 12】 한미 간에 맺은 MD 작전통제권 행사와 관련한 합의 내용의 개요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전계획 5015에 따른 한국군 MD 부대의 방어 자산 목록(DAL)에 주한미군 자산도 포함되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3】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국군 MD의 주한미군 MD와의 연동과 정보 제공, 한국군 요격자산의 역내외 미군 자산과의 통합 운영 및 작전훈련, 유사시 미 육군 제94 방공 및 유도탄 방어사령부(AAMDC)의 전술지휘와 이를 통해 뒷받침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한국군 MD에 대한 작전통제,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군 MD 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 등 한국 MD의 미국 MD의 편입 기준은 모든 부문에서 충족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여전히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MD가 미국 MD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4 】 한국 MD가 유사시 역내외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연합 통합 및 연동 작전 연습을 중단하고 한국군 MD 체계를 독자체계로 운용하며 한국이 한국군 MD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직접 행사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한미 간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한국군 MD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계속 행사하게 되는지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5 】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위기관리 대상에 미국을 포함시킬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6 】 주한미군 사드 성능개량과 한미일 MD 체계 및 한미일 (의사) 군사동맹 구축으로 사드 관련 대중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MD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은 사장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가중시키고, 외교적 보복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군이 추동하고 있는 사드 성능개량과 한미일 MD 구축,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 한미일 (의사) 군사동맹 구축을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중단시키고 대중 3불 정책을 지킬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7 】 주한미군 MD 훈련과 지난 5·29 소성리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장비 외에 최소한 2~3기의 사드 발사대가 남한에 추가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어떠한 사드 장비들이 국내에 추가 반입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8 】 이른바 한국이 콰드 플러스에 참여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9 】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한미동맹에 기대서는 더 이상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이행해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있습니다.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미중 간 균형외교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활로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이행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계속되는 성능개량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사드가 남한 방어에는 여전히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현재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라고 하는 주한미군 MD 전력 증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는 사드 발사대를 레이더로부터 이격시켜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사드 원격발사, 2단계는 사드 레이더 탐지, 추적정보를 이용한 패트리엇의 원거리 발사(LoR), 3단계는 패트리엇 MSE탄과 발사대를 사드 포대에 통합시키는 사업이다. 1단계는 이미 시험발사에 성공해 주한미군 사드가 구현 중에 있으며, 2단계와 3단계 1차 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현할 예정이라고 한다.
-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가 구현되면 사드와 패트리엇의 방어범위가 확대되고 요격률도 높아진다는 미 미사일방어청과 육군의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
- 그러나 한반도는 중심이 짧고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격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식별, 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1/2/3단계도 바로 이러한 지형적,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사업으로 사드와 패트리엇이 구현하게 될 성능이 한반도에서 MD가 근본적으로 갖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수많은 이동발사대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회피기동과 동시다발 공격 등으로 남한의 미사일 방어망을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
- 또한 북한의 구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비행 중 자연적으로 형성하는 공중제비돌기나 나선형과 같은 궤도는 사드, 패트리엇의 레이더로 정확한 탐지, 추적이 어렵고 요격미사일이 공격 탄도미사일의 불규칙한 궤도를 추적할 수 있는 급가속의 기동성을 발휘할 수 없어 요격이 불가능하다.
- 또한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은 비행 중 저궤도로 변칙 비행을 하고 종말단계에서 풀업을 할 수 있으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KN-24 탄도미사일도 이동발사대를 이용한 은폐, 신속 발사가 가능하고 비행 중에 기동과 유도 정밀타격이 가능하며, KN-25 다연장로켓(북한판 에이태컴스)은 로켓과 미사일의 계선을 허물어 정밀 유도와 타격이 가능하며, 한국의 KTSSM과 유사하게 4발을 20초 간격으로 연속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KN-25 로켓을 일제히 동시 발사하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MD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CRS 보고서, 2020. 7. 14.). 이 무기체계들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북극성)과 함께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1/2/3단계에 따른 사드, 패트리엇의 성능개량과 통합에도

불구하고 요격이 어렵다.

- 최근 미국이 MSE 요격미사일을 이용해 변칙 기동을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고 하나 어떤 상황에서 요격을 했는지 미지수며, 특히 동시발사에 대한 요격일수는 없다는 점에서 MD 체계의 요격 한계는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문화일보, 2020. 7. 23.).
- 따라서 MD가 지리적,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격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다. 공격 미사일과 로켓의 MD 요격 회피 기능은 날고 있는데 반해 MD 요격 능력은 기어가는 수준이다.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1/2/3단계 구현 후에도 계속될 사드, 패트리엇, 이지스 체계의 성능개량으로 MD 요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공격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것은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 이에 국방부도 “사드가 남한 방어에 부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이미 2013년에 낸 바 있다(진성준 의원실, 2015. 5. 21.).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면서 MD 개발과 배치를 계속하고 있고, 남한에 사드 포대까지 배치한 것은 MD를 포함한 핵우산 제공을 명분 삼아 군사동맹을 유지, 확장하려는 정치·군사적 속계산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 또한 한반도 MD와 달리 상대적으로 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시간적, 물리적 조건이 주어지는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성을 높여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방어해 보려는 데 MD 투자의 최우선적 이유가 있다.
- 실제로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긴급작전요구의 일환이며, 인도·태평양사령부 긴급작전요구는 지역적 차원에서 상층방어체계(사드, 이지스 BMD)와 하층방어체계(PAC-Ⅲ MSE)의 통합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는 주한미군 MD 체계가 남한 방어를 위한 독자적 체계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MD 체계의 하위체계로 인도·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임무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북미 간, 미중 간 유사시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한국 방어보다는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서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 이는 사드 레이더의 종말모드로의 운용을 전제로 하는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1/2/3단계 구현으로 주한미군 MD 체계가 구현한 성능마저 북미, 미중 유사시에는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 사드 레이더를 추가 배치해 1기는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고 다른 1기는 종말모드로

운용하거나, 1기의 사드 레이더를 수시로 전진배치모드와 종말모드로 전환해 가며 운용하거나,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와 종말모드를 동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를 통해 구현된 사드, 패트리엇 성능도 살리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한국에 사드 레이더를 추가 배치하는 것은 한국민의 정치적 반발과 중국의 반발을 고려하면 쉽게 실현될 수 없다. 또한 사드 레이더 1기를 두 모드로 전환해 가며 운용하는 것은 어느 한쪽 방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1기의 사드 레이더가 두 가지 모드로 동시에 운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사실 자체가 사드 레이더의 남한 방어에 대한 기여는 미군의 태평양 미군과 본토 방어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제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 이러한 상황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서는 근원적으로 MD가 무용하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 것이자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1/2/3단계를 통한 주한미군 MD의 성능개량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MD 무용론을 극복하기는 어렵고, 이에 주한미군 사드가 더 이상 남한에 배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 질문 20 】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 질문 21 】 한국군이 사드 포대를 도입하거나 주한미군 사드 포대를 인수할 계획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2 】 주한미군 사드 포대를 철수시켜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저지해 볼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소성리 사드는 불법 도입에 이어 불법 사드 부지 공여, 불법 환경영향평가, 불법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 불법으로 점철되어 오고 있다. 미 본토 방어를 위해 평시에는 우리나라의 토지, 세금, 환경과 주민의 삶을,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 등을 희생시킬 것을 전제로 해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부지 공여와 운영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과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한미 간 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나 이 모든 것이 생략된 채 불법으로 점철되어 왔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한미 간 합의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한미 공동 보도자료’(2016. 7. 8.)뿐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문서로 체결된 것이 아니며 심지어 ‘기관 간 약정’의 지위조차 갖지 못한다. 이에 소성리 사드 배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천무효이며, 이러한 위법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사드는 마땅히 철수되어야 한다.
- 주한미군 사드의 불법 배치를 도외시하더라도 소성리 사드 배치는 정부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듯이 임시배치 상태에 불과하다. 이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는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사드 부지 공여 역시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조약(소파 2조 1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 부지 공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한미 간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합의 건의문(Agreed Recommendation, 2017. 4.)’뿐이다. 그러나 이 ‘합의 건의문’은 소파 합동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거쳤을 뿐, 조약으로서 국내법적 절차—정부 대표 서명,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치지 않아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 따라서 ‘합의 건의문’에 근거한 1차 부지 공여(32.8m²)는 불법이며 현재 진행 중인 2차 부지 공여(1차 공여 면적 포함 총 70만m²)도 법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나아가 주한미군 사드 부지 제공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다.
- 또한 부지 쪼개기 공여라는 국방부의 꼼수로 소성리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시행되지 않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중단되어 있다. 심지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환경부의 각종 환경기준 국내법 적용 우선 적용(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 9. 4.) 등의 조건부 승인조치를 주한미군이 수용하지 않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소성리 사드 부지는 군사시설로도 지정되지 않은 임의시설에 불과하다. 적법한 부지 공여 절차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전공사의 금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 위반이다.

-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건설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부가 스스로를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꼴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18년 사드 부지 설계비로 5만 달러(약 6,000만 원)를 전용(2018 방위비분담금 연례 집행보고서)했으며, 2021년에는 사드 부지의 탄약고 3개 동과 관련 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사드 부지 공사를 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반이다. 한미소파 5조는 대한민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대신 미합중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부지 공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또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위반이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 설계비와 탄약고 및 부지 기반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이나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도 사드 부지 건설비(설계비 및 탄약고 등)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제11차 협정은 체결도 되지 않았으며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 설사 제11차 협정에서 사드 부지 건설 공사비 부담 항목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미소파에 위배되어 불법이다.
- 이에 한민국 전 국방장관이나 강경화 외교장관도 사드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2020. 2. 18.)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해 이뤄질 사드 부지 탄약고 공사는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 부지 공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갇갇이 환경영향평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환경영향평가도 위법이며,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지 공사는 불법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설계나 공사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렇듯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국가 영토, 재정, 환경 주권을 희생시키고 주민의 삶은 저당 잡히고 있다.

【 질문 23 】 주한미군 사드 도입→부지공여→환경영향평가→부지공사 등으로 이어지는 불법성을 제거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위이자 정부의 책무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도입된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불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4 】 법적 근거 없이 공여된 주한미군 사드 부지 공여의 불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5 】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의 불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6 】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 공사의 불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7 】 국방부는 사드철회평화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2020. 3. 31.)에서, 2018년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5만 달러를 사드기지 부지개발사업 설계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기지 부지 개발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불법 전용된 5만 달러의 환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불법 전용된 방위비분담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8 】 탄약고와 전기/수도 등 기반공사비로 방위비분담금 4,900만 달러가 불법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주한미군 사드는 남한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결코 남한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는 무기체계다. 따라서 주한미군 사드는 즉각 철수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최소한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군사주권적, 사법주권적 감시·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주한미군 사드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보다 오히려 더 위태롭게 한다.
- 또한 주한미군 사드는 도입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한 앞으로도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될 무기체계다.
- 따라서 주한미군 사드를 즉각 철수시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불법성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 주한미군 사드 철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적 구도를 완화시켜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이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번영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아울러 주한미군 사드가 철수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사드 운용 실태에 대한, 특히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군사주권적, 사법주권적 차원의 감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미국·루마니아와 미국·폴란드 간 MD 협정은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자국 내 미국의 이지스 어쇼 기지에 대한 군사주권적, 사법주권적 관할권을 보장함으로써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기지 사령관이 미국의 이지스 어쇼 MD 기지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이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요격미사일을 포함한 이지스 어쇼 체계의 구성요소, 주둔 규모, 훈련 등에 대해 서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한미군 사드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루마니아나 폴란드가 자국 내 미국의 MD 체계에 대해 확보하고 있는 수준의 군사주권적, 사법주권적 감시, 통제장치라도 확보해야 한다.

【질문 29】 주한미군 사드의 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군사주권적, 사법주권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0】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과 성능개량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군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시, 통제기구의 운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미군주둔지역 등 안전/환경사고 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용회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부산평통사 회원)



지난 5월 11일 부산시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도용회 의원

“부산시에 소재하는 미군주둔지역 내는 부산시의 관할이 아니므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부산의 주한미군 관련 시설(감만 8부두 미군부대)에서 생화학실험사고 시에만 울리는 사이렌이 울렸을 때 사고경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저에게 부산시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렇게 주한미군 관련 시설은 지난 수십 년간 치외법권 지대로 존재했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고 있는지 부산시민들은 알 수가 없었다.

부산에는 55보급창, 8부두, 백운포 주한미해군사령부 등 많은 주한미군 시설이 존재하고 핵잠수함 등이 백운포 기지를 통해서 드나들고 있다. 8부두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는 생화학무기실험체계인 주피터프로젝트-센토-가 실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 미군 책임자가 직접 맹독세균을 반입해왔다고 언론 앞에서 인정한 사실도 있다. 미군이 들여온 보툴리눔은 치사율 95%의 맹독성 물질로 알려진 탄저균보다 10만 배나 독성이 강한, 지구에서 현존하는 최강 독소로 불리는 맹독세균으로 단 1그램만으로도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한다. 리신이라는 독소는 식물에서 뽑아낸 독소 중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암살용으로 쓰이는데, 지난 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리신이 묻은 우편물이 발송된 게 적발돼서 기사화 된 적도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독성물질들이 반입되고 유사시에 미국의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의 무기가 부산에 또 들어올 수 있는데, 부산시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것을 관리 감독할 권한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핵항모, 핵잠 뿐 아니라 첨단 무기를 장착한 군함

이 부산에 입항하는 것은 북미, 미중 대결이 첨예화되고 긴장이 높아질 경우 부산이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히 핵 추진 함정들의 입항은 부산 지역에 있는 핵발전소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에 부산 평통사 강문수 대표와 손기종 사무국장, 박석분, 이의용 운영위원과 함께 지난 2018년부터 미군기지 내, 공여구역 등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환경문제 등에서 대한 예방과 대응, 후속조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우리는 고베 시의 비핵 『고베 방식』처럼 핵 추진 함정 등의 입항을 거부하고 부산 기지를 활용한 군사훈련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 등 부산시 조례를 강력한 내용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입법정책실 등 부산시 관련 부처는 한미소파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이라 상위법과 충돌한다, 군사기밀이라 안 된다는 이유로 많은 부분이 삭제되었고 강행규정 또한 “노력한다”는 것으로 약화되었다.

비핵 『고베 방식』이란?

1975년 고베시가 고베사회(의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말한다.

- 고베항에 입항을 희망하는 나라는 해당국(공관)에 비핵 증명서(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비핵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베시는 해당 나라의 입항을 인정하지 않는다.

비핵 『고베방식』 실시 이후, 미군함은 단 한 척도 고베항에 입항하지 못했다. 본 조치는 일본이 국시로 삼는 비핵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 않는다)을 자치단체의 조치로 보다 실효성 있게 한 것으로, 항만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는 일본의 제도의 특징을 살린 것이다.

핵무기 적재함정의

고베항 입항거부에 관한 결의

고베항은, 그 입항선박 수 및 취급하는 화물량에서 보아도, 세계의 대표적인 국제상업무역항이다. 이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용하기 쉬운 항구,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하기 좋은 항구로 발전하고 있는 고베항은, 동시에 시민에게 친숙한 평화로운 항구가 아니면 안된다.

이 항에 핵무기가 반입되는 일이 있다면, 항만기능의 저해는 물론, 시민의 불안과 혼란이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고베사회는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의 고베항 입항을 일절 거부하는 것이다. 이상, 결의한다.

1975년 3월 18일 고베사회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부산광역시 미군주둔지역 등 안전/환경사고 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는 2020년 10월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부분의 조례가 하루만 심사하고 통과하는 것과 달리 15일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안전위원회

를 통과했고, 10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후속 조치로 시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주한미군 간의 협력체계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과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 측이 소유한 주한미군기지 등의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SOFA 합동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와 산하 기구를 비롯, 주한미군 관련 기관과 국방부, 외교부 등 국내 정부기관을 통해 정보제공을 적극 요청하고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는 우리가 기대하고 마련한 안보다는 많이 후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부산에 주둔하는 미군 때문에 발생한 안전 및 환경사고 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조례는 제정되자마자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본 조례를 주민투표 운동 추진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본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정책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화학실험실 폐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는 시장이 취해야 할 후속조치의 하나인 것이다.

이 조례에 기초하여 앞으로 일본 고베시 조례처럼 핵 함정들이 입항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것처럼 강력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같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난 여름 해운대에서는 미군들의 폭죽 난동이 있었다. 주한미군에 의한 사고와 환경파괴 등의 문제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역에서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이 진행된다면 한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불법을 무시로 저지르는 미군들에게 대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20 청년평화아카데미

소감 모음

2020청년평화아카데미는 11/14(토), 현장탐방을 시작으로 12/30(수)의 마지막 강의까지 총 아홉 강을 진행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아카데미에 연 인원 200여 명이 참가했고, 청년들은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카데미를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의 소감을 싣는다.

정인영(성공회대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청년평화아카데미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해결방안’ 강연에 참석한 정인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본 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평통사 구성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연대와 소통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즘, 희망의 길을 열기 위한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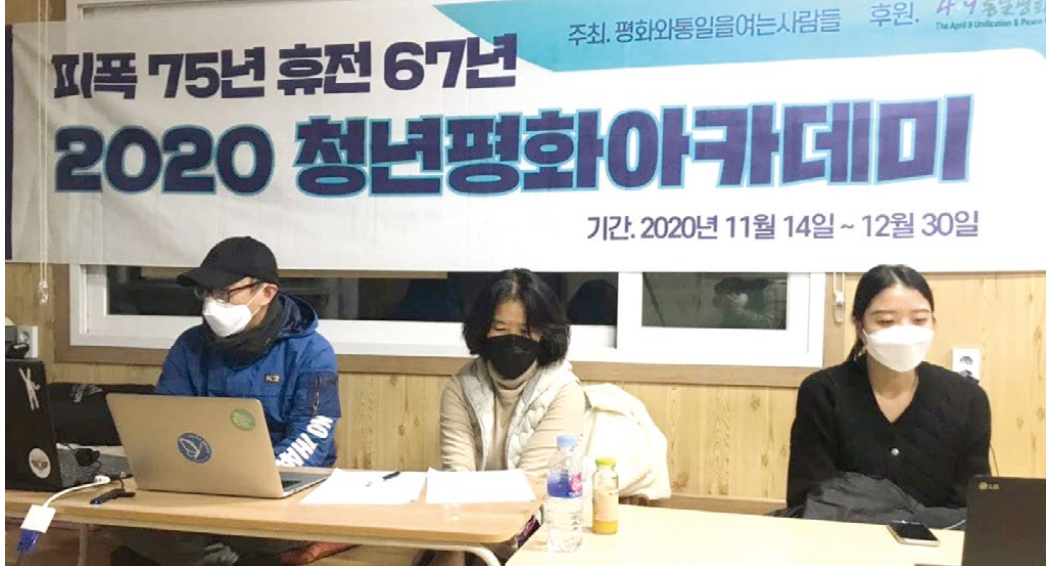
강연은 방위분담금과 그에 얽힌 평화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해주었습니다. 오미정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방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로서 권력구조에 의한 착취를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드배치 지역, 미군기지 속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앗아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이상 속된 정치놀음에 놀아나지는 않겠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평화를 위한 걸음을 찾아보고 지지해보고자 합니다. 제 나름의 길도 있지만, 평통사가 열어준 연대의 메시지를 받아 응원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포츠담 대학교)

‘청년평화아카데미’. 무심코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중 게시물 하나가 단박에 두 눈을 사로잡았다. 낯선 단체였다만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만으로도 제법 흥미가 붙었다. ‘전쟁과

분쟁’을 공부하는 나로선 항상 향해야할 목표로 아로새기고 되뇌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끌리듯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온라인 강의에 참여했다. 참가하신 분 대부분은 학생 분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장 반가운 점이였다.

나의 학부 시절을 돌이켜보면 슷기 없고 소심하여 무언가 해볼 생각도 못했고, 친구들, 교수님들 몇 분과 사담이나 늘어놓곤 했다. 이제와 막상 무언가를 하려해도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나 홀로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만 많던 중 평통사 청년모임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한창 바쁠 학생 분들이 현장까지 찾아다니며 활동하고 있다니, 그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부끄럽고 죄송스런 마음도 들었다. 이제라도 귀한 분들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한 기회라 여겼다. 많은 시간을 함께한 것은 아니지만, 매번 고양된 경험은 나를 새로운 경지로 이끌기 충분했다. 다시금 한국을 떠나있더라도 언제나 응원하고 있으리라. 평통사, 파이팅!

목서윤(성공회대학교)

2020청년평화아카데미에 참가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만나지 못하고 잊혀질 수 있던 분들을 만났고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던 문제를 조금이나마 접하게 되었다.

내가 만나지 못할 것 같았던 교수님도 만나게 되어 신기했다.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평통사에 친절한 분들이 계셔서 좋았다. 개인적으로 궁금하다고 하면 자료도 주시는 분이 계시다.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었고 내 체력도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줌으로라도 의사소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몸을 움직여서 대면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줌으로 말씀을 친절하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심이 되었다. 다만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 수가 너무 적다는 게 아쉬웠다. 이런 모임들이 더 많이 개최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도




이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묻히는 목소리를 지금보다 더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목소리와 소통했으면 좋겠다. 또, 얼른 대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아카데미에 참가하여 들으면서 느낀 것에는 평통사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동경심이 제일 크다. 그분들의 열정과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수면 위로 올리는 행동이 좋았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노승연(상지대학교)

2018년 12월, 평통사에 처음 발을 들인 이후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활동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 같이 한 행사는 ‘청년평화아카데미’였다. 우

리가 그동안 배우고 공부한 것들을 평통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배움을 나누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호소하는 자리이다. 작년엔 이런저런 일이 겹쳐 실질적으로는 처음 참여해보는 행사였다. 그마저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화상 통화를 이용해 어렵게 이야기하며 만들어낸 자리였으니 준비 기간만 해도 만만치 않았지만 성공적이고 훌륭한 아카데미였다고 생각한다.

아카데미를 하며 느낀 것은 내가 지금껏 얼마나 폐쇄적인 학습만을 해왔는지 하는 점이다. 공동체 안에서만 서로의 배움을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배움의 깊이도 모르고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게 두려웠다. 물론 이진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공부해야지 다짐하면서도 부족하다. 이것은 나에게 절박함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글을 읽었는가, 이걸 왜 해야 하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절박함이 부족했기에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은 질문이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전 나에게 다시 묻는다. 우리는 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인가? 그 답은 앞으로의 활동이 답을 줄 것이다. 

「평화누리통일누리」에 대한 쓴소리 단소리

‘평화누리통일누리’를 통해 느끼는 평통사 회원이라는 자부심



김중희
대구평통사 회원

40여 쪽 안팎의 2020년 11월호 199번째 평화누리통일누리 표지에 반가운 얼굴들이 가득하다. 소성리 임시사드기지 앞에서 “불법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빼고 미군빼라!”는 힘찬 외침이 표지를 뚫고 나온다.

매번 그렇지만, [현안]의 내용들을 읽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변정리부터 하고 책상에 앉아야한다. 시의성을 반영한 현안들은 평통사 투쟁의 길잡이이자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용이 전문적이고 분석적이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반면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을 수 있다.

[회원]란에 실린 글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펼쳐서 읽는데, 온 몸으로 실천하며 얻은 생각들을 공유하는 글은 감동 그 자체이며 나 또한 평통사 회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짐하며 한동안 글에 빠져있게 만든다.

[투쟁현장의 이야기와 지역소식]은 분단과 한미동맹으로 인한 아픔과 불법의 현실을 알려 줌과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분들과 연대감을 느끼게 해준다.

읽기에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가득한 회지이기는 하지만 사족처럼 덧붙이자면,

· 표지 사진 이야기

· 현안에 실린 글에 대해 더 읽어보면 좋을만한 신문기사나 참고글 안내, 그리고 좀 더 생각해봐야할 것을 질문형식으로 제시(회원들에게 답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해주면 좋겠다.

· [평통사 20장면 +]와 연관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평통사의 소중한 글과 사진, 보도자료 등등을 다시 읽어보는 코너도 좋을 것 같고,

· 평통사 실천과 관련된 책이나 영화 등을 소개하는 코너도 좋을 것 같다.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가 모두 담긴 평화누리통일누리는 이 작은 땅 한반도 곳곳에서 분단과 한미동맹을 극복하고 자주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평통사 회원들을 만나게 해주어서 나도 평통사 회원이라는 자부심을 높여준다. 그리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회원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준다.

평통사 회원이라면 알아야 할 내용으로 가득한 평화누리통일누리



정현희

부천평통사 회원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날아오는 ‘평화누리통일누리’ 회지를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 안아 소중히 한 줄 한 줄 읽고 있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 분들이 전국 곳곳에 있음에 든든하고 기쁘다.

얼핏 계산을 해 보아도 월간 200호면 17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평통사의 주요 활동과 현안들을 정리하여 회원들과 시민사회에 알려왔으니 그 존재만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선봉의 역할을 다하는 회지임이 분명하다.

내가 속한 부천평통사에서는 한 달에 두 번 화요일에 공부모임을 진행한다. 한 번은 강의식으로 발제자가 준비하여 나누는 공부이고, 또 다른 한 번은 회지글을 함께 읽으며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식이다. 나는 이 공부모임을 통해서 회지의 내용이 한 줄도 그냥 허투루 쓰이지 않고, 평화통일연구소에서 밤잠을 설치는 노력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진가를 깨닫게 되었다. 평통사 회원이라면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 엄선해서 실었겠지만 해설이나 보충설명 없이 읽혀지지 않는 글이 다수인 것도 사실이다. 각주가 꼼꼼히 달린 논문을 읽는 달도 다반사인 걸 보면, 회지를 읽는 것이 기쁨보다는 꼭 해내야 하는 숙제로 여겨짐을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숙제를 해야 제 실력이 된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우리 회지가 재미로 읽는 잡지는 아니지만, 196호의 [평화흔씨 대회 소감과 이모저모]처럼 전국 평통사 회원들의 활동 모습이나 이야기를 좀 더 여유 있는 지면으로 만나면 더욱 좋겠다. 항상 변함없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쓰는 우리 평통사 식구들의 든든한 소식지 ‘평화누리통일누리’의 200호 발행을 함께 기뻐하며 사랑한다.

대중들의 언어와 눈높이로 분단 현실이 우리 삶을 옥죄고 있음을 일깨울 수 있길

어느 사이, ‘평화누리통일누리’가 기다려진다. 고정된 일상과 SNS 홍수 속에서 조금씩 멀어진 종이활자와의 거리를 우리 회지가 좁혀주고 있다. 50쪽 내외 소책자라지만, 속이 짝 찬 작은 밤톨처럼, 섭취할 양식들로 그득하다. 몸매가 날씬한 덕에 항상 외투 안주머니에서 대기하다 자투리 시간에 언제든지 부르면 출동하는 mobile



김기중

목포평통사 회원

book이다.

11월 회지(199호)에는 청년 회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려서 좋았다. 특히 실천 속에서 변화해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진솔하게 얘기해주는 코너가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철옹성 같은 수구세력의 온갖 방해 속에서도, 학습과 실천, 자신의 재능 발휘를 통해 분단 체제 극복과 통일의 싹을 키워가는 젊은 회원들의 열기가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항공모함 도입 중단, 황산을 시민 품으로, 미군열화우라늄탄의 실상을 고발하는 현안 코너는 또 다시 일상에 잠들고자 하는 관성적인 나의 영혼을 깨워주었다. 미·중 대립이 날로 첨예화되는 현 시점에서 무분별한 무기 도입과 군비확장이야말로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임을 정부와 군사당국자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군비축소와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미국, 중국은 물론 모든 국제사회에 선제적으로 강력히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밥이 되고 살이 되는 우리 회지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회원을 많이 확보하거나 회지를 함께 돌려보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대중들의 언어와 눈높이로, 전쟁과 분단의 현실이 버젓이 포아리를 들고 앉아서 매 순간 우리 삶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쉽게 다가오지 않는 외래어나 전문용어를 하나라도 좀 더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해보는 시도와 함께, 삽화나 디자인을 가미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증대시켜보았으면 좋겠다.



권현영

대전충청 회원

회원 자신의 삶이 실린 회지가 되길

평소에 신문도 잘 읽지 않아 시사에 켜병인 터라, ‘평통사 회지는 무슨 논문이래...’ 하며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하여 제목만 보다시피 하며 페이지를 넘기고는 맨 뒷부분 지역 평통사 소식에 아는 얼굴을 찾아 반가워하는 수준이었다.

학습모임에 참여하면서부터 전문적 내용을 접하다 보니 익숙지 않던 SCM 등 아는 용어를 포함해서 현안 읽기에 문턱이 낮아진 하였지만 여전히 술술(?) 읽히지는 않았다. 그런데 회원들의 자

기 이야기(특히 청년들)가 실리면서부터 급 재미와 공감의 일어나면서 그 딱딱한 분석글들이 절실한 연구를 거친 땀방울로 여겨졌다. 특히 기자회견문은 그 명료한 외침에 버리기 가까웠다.

내가 회지에 거는 기대는 사람들의 이야기(평화홀씨 대회 때 발언한 회원들의 이야기들처럼)가 실려 사람 냄새가 나고, 회원 자신의 삶이 실린 우리의 회지로 한층 가까워지면 좋겠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론 지역소식란을 더 풍부하게 채워 전국 평통사가 가족같이 근황을 나누면 험한 세상 함께 견딜 위안과 연대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름부터 좋아요

우리 회지는 이름부터 좋다.

“평화누리통일누리”

우리의 활동 지향점을 이보다 잘 표현해줄 제목은 없을 듯하다.

회지는 모임의 활동상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 회지는 더 나아가 실천의 방향성과 왜 그런 실천을 해야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실무자가 늘어나고 역량이 커지면 두 가지 보충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

첫째는 각 지역의 일반 회원들을 한 명씩 인터뷰해서 그 지역의 활동만이 아닌 생활상을 알리는 꼭지가 있으면 하는 것과,

둘째는 단신으로라도 그달의 이슈를 알리는 난이 있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행상황이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나 하는 사회적 이슈 중 회원들이 우리 활동 아니라도 알아야 할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하는 바람이다.

여러 어려운 여건 중에도 알찬 회지를 만들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정숙

서울평통사 회원

평화누리통일누리 200호 기념 단소리 쓴소리



강문수

부산평통사 대표

평화누리통일누리는 평통사와 시민들을 이어주는 다리다. 주변 지인들에게 평통사를 소개할 때 회지를 내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면 대부분 회원이 되어준다. 평화누리통일누리는 회원들과 소통하게 해주는 이야기보따리다. “회지 받아봤어요?”라고 말을 걸고, “어떤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라고 물어보며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특히 부산 소식이나 부산 회원들의 글이 실릴 때면 할 이야기가 더 많아진다.

평화누리통일누리는 부산평통사 회원들의 학교다. 회지읽기모임으로 시작한 회원들의 소모임은 지금 학습모임으로 정착했다. 우리 회지는 누구도 감히 다루지 못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식의 보고와도 같다. 처음엔 어렵지만 읽고 또 읽는 사이 전문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스스로를 확인하며 미소 짓게 된다.


평화누리통일누리는 나의 자부심이다. 먼저 읽으며 어떤 글을 갖고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하다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는 평통사에 대한 자부심이 차오른다.

평화누리통일누리가 e-북처럼 되어 마치 포털매체처럼 온라인에서 읽기 쉽게 제공되면 좋겠다.(예를 들면 <https://newneek.co/>) 지금은 파일을 다운받는 방식인데, 각 글별로 링크를 열고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기사에 댓글도 달 수 있게 해주고 시민들이 글을 보고 바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

회원기자제도를 두어 누구나 기사를 올리고 소통하는 회지가 되면 더 재미있을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패기 발랄한 감성으로 어렵고 무겁고 힘든 이야기들을 참신하게 풀어내는 온라인 공간으로 발전하면 좋겠다. 매월 학습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때 정기적으로 잘 나오면 금상첨화! 마지막으로 회지 만드는 일꾼들에게 하트하트!!

평화누리통일누리와의 조우 1년에 즈음하여...

뜨거웠던 그해 겨울 2016년 12월, 친구 따라 광화문 갔던 촛불행동 행진도 어느덧 만 4년이 지났다. 평통사 회원 가입 한지 1년, 이젠 친구 서은철 군 말고도 오랜 지기 중 김동춘, 김대용도 평통사 회원으로 함께 했다.

올해 1월부터 집으로 보내온 평통사 월간 간행물 "평화누리통일누리"를 정독하면서 그간 정규뉴스나 종편 jtbc, 연합뉴스 등에서 알지 못했던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세부내역이라든지, 군산 미 공군기지의 실태와 열화우라늄탄 보유 건, 사드 배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깊이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평통사의 젊은피 이우성 청년팀장, 김은주, 이기훈, 박하영 간사의 활동모습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실린 심경과 평통사에 대한 마음가짐의 글을 보면서, 내가 김성태 대표와 함께 왜 일인시위, 기자회견, 그 외 강연과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에 미미한 봉사라도 거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회지에 실리는 글 중에서 좀 부족하다 싶은 것은 회원들 일상의 주변 미담이나 연세 드신 분들의 회고(?) 또는 과거의 기록 같은 것들이나 평화, 통일을 주제로 한 시나 수필, 수채화, 삽화 같은 것이 있으면 회지가 딱딱한데서 약간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021년에도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외쳐본다. "사드 빼고 평화오라!" 



김태정
인천평통사 회원

「평화누리통일누리」 101호~199호 회지 순서모음

101호, 2011. 1



- 여는 그림 : 문규현 상임대표님 주임신부직 은퇴 /오미정
- 사람_인터뷰 : 애기봉 등탑 불빛은 꺼져야 한다는 이적 목사를 만나 /오미정
- 독자와의 만남 인터뷰 : “책을 더 많이 찍어서 사람들에게 돌려면 안될까? 내가 회비를 올릴게” /주정숙
- 특집-정세 : 대화국면으로의 전환과 한미동맹 강화 기도 /고영대
- 특집-정세 : 새 시대의 중미관계와 한반도의 길 /강정구
- 특집-정세 : 일본 민주당 정권의 보수화와 한·미·일의 노골적인 삼각군사동맹 구축 확보 /박기학
- 회원 이야기마당 : 2011년도 평통사 워크숍 “올해는 출발부터 조짐이 보여~”

102호, 2011. 2



- 사람_인터뷰 : 현장으로의 온전한 투신, 제주 강정마을 바다에서 풍찬노숙 하는 영화평론가 양운모 선생님 /오미정
- 기획 : 국방예산 줄여, 복지예산으로 /최창준
- 현안 : 대화국면 찬물 끼얹는 2011년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 /유영재
- 현안 : 미군, 광양항을 다시 넘보다 /정동석
- 세상툏아보기 : 남북 군사실무회담 평가와 대화재개 전망 /오혜란
- 특집 :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평통사 17차 운영위원회 총회와 2011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선포식 /서종환
- 회원 이야기마당 : 퇴임후 단상 /김창환

103호, 2011. 3



- 사람_인터뷰 : 통일의 도시, 파주에 평통사가 떴다! 고양파주평통사를 준비하는 김원식 회원/유정섭
- 기획 : 지금은 전쟁과 대결이 아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조승현
- 세상툏아보기 : 대북 식량지원에 대화 재개의 첫걸음 /유영재
- 현장 : 산정호수 옆 승진훈련장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화력시범훈련과 안보관광 /김종일
- 회원 이야기 마당 : 광주전남지역의 전쟁연습 반대, 평화지킴 행동 /조용석
- 평화협정 실현운동 : ‘아하! 지역에서 시민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민족문제인 평화통일운동을 해야겠구나!’ /이봉원
- 노동 : 말 그대로 “해고는 살인” /김영재
- 자료 : 역대 최대의 국방개약인 ‘307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104호, 2011. 4



- 여는 그림 : 허세욱 열사 4주기 추모제 / 오미정
- 회원 이야기 마당 : 별을 바라보며 - 허세욱 평전을 읽고 / 유종천
- 회원 이야기 마당 : 미국 오레곤 주에서 열린 반전 평화시위 / 그레이스 와이너
- 쓴소리 단소리 : 평화누리 통일누리 103호를 읽고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 기획_예산 : 평화군축 예산으로 지자체 재정과 민생안정 도모하자! / 안병순
- 세상 퉏아보기 :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결성 의의와 향후 과제 / 김종일
- 현장 : 진실을 전하는 풍선?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풍선 / 조승현
- 현장 : 서해 5도 평화 풍어 기원제 - 연평 아리랑 : 평화+상생 / 유정섭
- 현장 : 제주해군기지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 김종일
- 평화협정 실현운동 :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대중화- 2011년 ‘평화올레’에 대하여 / 박석분
- 해외평화운동 : 전력 독점 자본과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 AWC 일본연락회의
- 노동 : 최저임금 5,410원 쟁취! /김영재

105호, 2011. 5

- 여는 그림 : 우리나라를 쓰레기장 취급하는 미군? / 최은혜, 오미정
- 사람_인터뷰 : ‘천일의 촛불, 천일의 희망’-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주병준 위원장 / 오미정

- 쓴소리 단소리 : 평화누리 통일누리 104호를 읽고 /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 추모의 글 : 민중의 벗 정광훈 의장님을 보내며 / 배종열
- 알림 : 별이 된 소녀의 꿈- 미션 · 효순 9주기 추모그림 전시회
- 알림 :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 통계
- 기획_예산 : 대형 공격 헬기(아파치헬기)사업은 예산 낭비의 지름길 / 조승현
- 세상 톺아보기 : 6자회담 재개, 그 멀고 더디고 힘겨운 여정 / 유영재
- 평화와 건강 : 건강한 삶은 '사회적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에서 시작한다 / 장두석

106호, 2011. 6



- 특집_강정 평화올레 : “힘내라 강정! 지키자 평화!” / 오미정, 김강연
- 특집_강정 평화올레 : 사진으로 보는 강정 평화올레
- 특집_강정 평화올레 : 강정마을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하는 이유 / 위보라
- 특집_강정 평화올레 :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강정마을을 지키는 일로부터 / 김숙희
- 특집_강정 평화올레 : 강정에서 만난 기쁘고 반가운 사람들 / 조영주
- 특집_강정 평화올레 : 강정 해군기지 문제를 외면하는 제주평화포럼은 무의미 / 조영배
- 특집_강정 평화올레 : “한계에 달했던 주민들이 힘내기 시작했다” / 고원일

- 특집_강정 평화올레 : 강정마을 싸움은 제주의 숙명적 굴레를 벗어나게 할 것 / 신구범
- 특집_강정 평화올레 : 날라리 외부세력들, 강정 맛에 빠지다
- 세상 톺아보기 : 교류와 협력이 우리 민족의 살 길입니다! / 김창환
- 현안 : 닥치고 현장발굴 조사하라 / 백창욱
- 현안 : 한미 SOFA 환경규정의 문제점과 극복 방향 / 유영재
- 기획_예산 : 오염은 미군이, 복원은 한국민 혈세로? / 조승현
- 기고 : 미션 · 효순 9주기 추모 전시회를 준비하며 / 김운성
- 쓴소리 단소리 : 평화누리 통일누리 105호(2011년 5월호)를 읽고
- 현재_평화와 건강_2 : 잉태, 태교, 출산, 육아 - 네 자녀 이상 얻어 나라의 동량으로 키우자 / 장두석

107호, 2011. 7-8



- 특집_강정 평화올레 : “세계의 평화는 강정으로부터!” 섬 밖에서, 반도 밖에서 더 커지는 응원 / 오미정
- 특집_강정 평화올레 : “이것은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 데이비드 바인
- 특집_강정 평화올레 : “사람들은 내가 그 거짓을 알기 원했습니다” / 글로라스 스타이넴
- 특집_강정 평화올레 : 제주도 강정마을에서의 4박5일 / 류근혁
- 특집_강정 평화올레 : ‘돌맹이 하나, 꽃 한송이 건드리지 마라.’ / 박성준

- 문화 : <작은 연못>, 61년 전 오늘.. 노근리 사건을 기억하다 / 김민하, 정서진, 지은영
- 특집_평화협정한마당 : 정전협정 58주년,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 / 서종환
- 특집_평화협정한마당 : 정전협정 58주년,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 인사말 / 문규현
- 특집_평화협정한마당 : 정전협정 58주년,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 결의문
- 특집_평화협정한마당 : 7.27 평화협정 행사 참가 소감 및 인천 평통사 인턴 후기 / 박은샘
- 세상 톺아보기 : 난관뚫고 다시 시작되는 6자회담 / 유영재
- 쓴소리 단소리 : 평화누리통일누리 106호를 읽고 /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 회원마당 : 3차 희망버스 참가후기 / 신재훈
- 사람_인터뷰 : 지구의 보호자가 된 국방과학자, 김재훈 박사 / 오미정, 지은영
- 연재_평화와 건강_3 : 여름철과 환절기 식중독과 전염병 예방과 대책 / 장두석

108호, 2011. 9

- 여는 그림 : 육지도벌대 / 고승민
- 특집_평화협정한마당 : 울지마 구럼비, 힘내요 강정
- 특집_평화협정한마당 : 제주해군기지가 과연 해양수송로를 지켜 줄 것인가? / 고영대
- 특집_평화협정한마당 : 법적 근거 없는 해군의 평시 해상교통로보호 임무 / 박기학



- 특집_평화협정만마당 : 강정아, 미안해. 그리고 너무 늦지 않아 다행이야. / 박명아
- 쓴소리 단소리 : 평화누리통일누리 107호를 읽고 /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 지역평통사 모임과 활동 : 서울평통사/부천평통사/인천평통사/대전충남평통사/군산평통사/전주평통사/광주전남평통사/익산평통사
- 감사합니다 : 회비와 후원금
- 편집후기 : '국가'가 '나'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면?

109호, 2011. 10



- 여는 그림 : 바람이 부는 방향- 그곳엔 '희망'이 있다 / 오미정
- 기획_한미FTA : 당신은 99%인가요? 1%인가요 - 99%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한미FTA / 오미정
- 해외 평화운동
- 쓴소리 단소리 : 평화누리통일누리 108호를 읽고 /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 사람_인터뷰 : 수줍던 그녀, 평통사 활동과 함께 성장하다. 부천평통사 전윤미 회원 / 주정숙
- 특집_힘내라 강정 :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제주의 그림자 '소외감과 차별' / 유정섭
- 특집_힘내라 강정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총체적 대국민 사기극! / 유영재
- 특집_힘내라 강정 : 제주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해군기지 / 박기학
- 특집_힘내라 강정 : 역사의 진보는 불의에 대한 분노로부터 시작됩니다. / 김종일
- 현안 : 국민 속여 미국 퍼주기 앞장서는 국방부 / 유영재
- 연재_평화와 건강_4 : 치료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 할 병원 / 장두석

110호, 2011. 11-12



- 특집_힘내라 강정 : 한반도는 암 환자 / 안학수
- 특집_힘내라 강정 :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면 삭감해야 / 고영대
- 특집_힘내라 강정 : 힘내요 강정 마을 / 노경두
- 특집_힘내라 강정 : "강정 외로워 마세요" 'Jam Docu 강정' / 박종찬
- 자료 :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출범선언문
- 쓴소리 단소리 : 평화누리통일누리 109호를 읽고 /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 해외 평화운동 : 원전문제에 관한 일본 정세 / 후루야 히로키
- 현안 : 영리병원을 향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무한도전 / 김문경
- 현안 : 전북고속버스 노동자가 보낸 편지 / 이재호
- 현안 : 미국 압력에 따른 글로벌 호크 도입 안 돼 / 유영재
- 세상툴아보기 : 제1회 대학생 · 청년 평화 아카데미 '청년, 세상을 읽자'를 마치며 / 황운미
- 세상툴아보기 : '88만원 세대의 현실과 희망에 대하여'강의를 듣고 / 백우연
- 세상툴아보기 : '위키리스크로 본 한미관계'에 대한 수업을 듣고서 / 서다정
- 세상툴아보기 : '떠오르는 중국, 추락하는 미국, 우리의 길은?' 강의를 듣고 / 박성준
- 회원 이야기마당 : 두드리면 열린다! -인천평통사후원의밤 뒷담화 /손선재
- 편집후기 /오미정

111호, 2012. 1



- 여는 그림 : 1000번째 수요집회가 열리던 그 곳! / 조승현
- 상임대표 인사말 : 흑룡의 세찬 기운이 어두운 역사를 이길 것 / 문규현
- 상임대표 인사말 : 임진년 새해를 열며! / 배종열
- 자료 : 2012년 총 · 대선 승리와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기원하는 비나리
- 문화 : 현실을 바꾸는 영화의 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 정서진
- 쓴소리 단소리 : 평화누리통일누리110호를 읽고 /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 칼럼 : 통일신라 다음 나라는 조선? /김진환
- 자료 :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를 크게 슬퍼합니다.
- 회원마당 : 평화의 대장정 /김인숙
- 강정평화기행 : 제주도 강정마을 다녀와서 / 조정현,이주은,황혜령
- 편집후기 / 오미정

112호, 2012. 2



- 현안 : 국가정보원의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 개요와 문제점 / 아시아인권위원회
- 현안 : 제주해군기지 저지 투쟁에 앞장서 온 평통사를 탄압하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다시 등장하다. / 아시아인권위원회
- 세상툏아보기 : 2021년 총·대선 승리로 평화협정을 앞당기자! / 유영재
- 나의 철원여행 답사기 / 정연일
- 쓴소리 단소리 : 평화누리통일누리 111호를 읽고 - 곧 올 봄을 기다리며/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113호, 2012. 3



- 현안 : 19대 총선 평통사 투표 방침은? / 19기 1차 중앙운영위원회
- 현안 : 2012년 총선에 즈음한 각 정당의 평화통일공약 평가 / 강정구
- 사람 : “더 큰 범죄를 막기위해 펜스를 넘고 철조망을 자르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 엔지 젤터의 강정이야기 / 오미정
- 회원마당 : “탄약 뚫고 총·대선 승리하여 평화협정의 길을 열자! 평통사 18차(2012년) 운영위원총회 / 최경순
- 세상툏아보기 : 진정한 핵안보 외면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강정구
- 해외평화운동 : 원전사고 1년, 일본 국민들은 요구한다. “모든 원전을 폐쇄하라!” / AWC국제사무국
- 현안 : 캄보디아 지뢰피해자 쏘 코살 “더 이상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아이가 세상에 없기를” / 박석진
- 쓴소리 단소리 : 마음을 움직이는 달 3월을 보내며 평화누리 통일누리 112호를 읽고 /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 칼럼 : 진실의 힘을 알기에 진실의 길을 갑니다 - 천안함 사건은 그 진실의 속살을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 신상철
- 칼럼 : 북한 공부, 왜 해야 할까요? / 김진환

114호, 2012. 4



- 현장 : 여러분의 기도가 뜻밖의 기적, 뜻밖의 선물을 만들 것 / 문규현
- 사진 : 지금 강정에선 / 심영호, 장현우, 오미정
- 세상툏아보기 : 북한 위성 발사 둘러싸고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 / 유영재
- 쓴소리 단소리 : 봄을 부르는 그대들에게 평화누리 통일누리 113호를 읽고 /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 세상툏아보기 : 19대 총선 약평 / 유영재
- 현장 : 2세대, 3세대까지 이어지는 핵 피해, “결코 안전하지도, 결코 깨끗하지도 않다” 합천에 모인 핵피해자들의 증언 / 오미정

115호, 2012. 5



- 현장_518광주 : 다시 5월 정신_기록을 지울수록 기억을 깊게 하는 것 / 지은영, 김강연, 양창흠
- 현장_강정 : 꼬일 대로 꼬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잘못된 정부 정책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 오혜란
- 현장_강정 : 불법이 일상화된 범죄자 마을 강정에서... / 김영재
- 칼럼 : ‘감수성’과 ‘평화’에 대한 짧은 생각 / 김진환
- 칼럼 : 통합진보당 사태를 노동 중심의 민주적 진보정당 건설 계기로 / 유영재
- 회원마당 : 평화도시 인천을 찾아 나서는 순례길 / 이희환
- 회원마당 : 인천 역사의 발원지 문학산의 아픔, 그리고 평화 / 유정섭
- 회원마당 : 인간과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 쿠바! / 안병순
- 회원마당 : ‘어머니’ 영화를 보고... / 한연순, 신나영
- 세상툏아보기 : 5·24조치와 한반도 전쟁위기 및 미·중 신냉전 / 강정구
- 세상툏아보기 : 한·미동맹은 불가피하지 않다 / 박기학
- 쓴소리 단소리 : 달마다 새롭게 - 평화누리 통일누리 114호를 읽고 /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116호, 2012. 6



- 특집_효순미선 10주기 : ‘소년의 꿈’이 세워질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힘 모아야 / 박상희
- 특집_효순미선 10주기 : 추모조형물 작품설명 / 김운성
- 특집_효순미선 10주기 : 효순이 미선이 추모비를 세우며 / 윤혜숙
- 특집_효순미선 10주기 : 미선효순 10주기 추모 토크콘서트를 준비하며.. / 김영재
- 사람_인터뷰 : 우리들의 큰 언니, 이은순 회원을 만나다 / 손선재
- 회원마당 : 영화 리더십 이야기 - 코리아(뜨거운 도전) / 장현권
- 회원마당 : “청년, 세상을 향해 소리쳐” 대학생 청년 평화아카데미 -김진숙 지도위원의 강의를 듣고 / 조정현
- 연재_쿠바기행② : 자연을 푸르게 인간을 건강하게, 지속가능한 쿠바! / 안병순
- 제안 : 한반도와 강정의 평화를 위한 촛불 이어주기 평화의 촛불, 강정에서 서울까지 / 박석분
- 세상툏아보기 : 한일 군사협정 왜 문제인가? / 박기학
- 세상툏아보기 : 천문학적 대형무기 도입의 실상 : 미국에는 퍼주기, 다음 정권에는 떠넘기기, 국민에는 눈 속이기 / 강정구
- 쓴소리 단소리 : 평화누리 통일누리 115호를 읽고 /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 쓴소리 단소리 : 평화누리 통일누리를 읽고 / 조수현

117호 2012. 7-8



- 특집_달려라 촛불 : 달려라 촛불! 힘내라 강정! 지키자 평화! / 문규현
- 특집_달려라 촛불 : 촛불을 들고 달리는 이유 / 나비
- 특집_7.27_평화협정 : 7월 27일 한겨레 전면 광고
- 특집_7.27_평화협정 : 2012년의 선택, 평화! -정전 59주년에 즈음한 7.27 평화선언
- 특집_7.27_평화협정 : 정전협정 59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727 평화행동
- 칼럼 : 찬밥 신세가 되어 버린 통일문제 / 김진환
- 연재_쿠바기행③ : 대중적 · 문화적 아이콘으로 알아보는 유쾌한 낭만의 쿠바! / 안병순
- 쓴소리 단소리 : 평화누리 통일누리 116호를 읽고 /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 해외 평화운동 : 확산되는 원전 재가동 반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 위한 투쟁 / 츠지야 겐지
- 현안 : 이명박 정부의 꿈수와 록히드 마틴의 오만, F-35 도입 사업의 문제점 / 조승현
- 회원마당 : 부평의 평화발자국을 남기다-슬픔을 간직한 도시 부평 / 김현희
- 회원마당 : 용산의 또 다른 희생자- ‘두 개의 문’을 보고 / 황윤미
- 회원마당 : 강정마을 평화순례를 다녀와서 / 원용철
- 회원마당 : 노동자가 없으면 음악도 없다 - 콜트콜텍 현장전 / 오미정
- 세상툏아보기 : 한일 군사협정 왜 문제인가?(2) -한일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협정의 문제점 / 박기학

118호, 2012. 9



- 특집_제주해군기지 : 환경과 생명과 평화의 이름으로 명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
- 특집_제주해군기지 : 케이스를 점거하다! 강정지킴이 김영재님을 만나 / 나비
- 특집_제주해군기지 :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인 근거들 / 고영대
- 특집_제주해군기지 :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해군기지 관련 결의안 추진의 의미와 과제
- 특집_제주해군기지 : 성체 모독 사건과 경찰 폭력, 공사저지투쟁..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 나비
- 특집_제주해군기지 : 문규현 신부님 2012년 9월 7일 재판 최후진술
- 쓴소리 단소리 : 평화누리 통일누리 117호를 읽고 /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 연재_쿠바기행④ : 슬픈 역사 고독한 투쟁의 힘 쿠바인의 삶 속의 대중 문화예술! / 안병순
- 세상툏아보기 : 북 및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하게 될 한일 군사동맹 / 박기학
- 회원 마당 :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 청년사업 이야기 / 이주은

119호, 2012. 10



- 특집_제주해군기지 :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2009억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자! / 오혜란
- 특집_제주해군기지 :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 / 박석진
- 특집_제주해군기지 : 계속 거짓말하는 총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안전성을 놓고 더 이상 도박하려고 하지 마라 / 고영대
- 특집_제주해군기지 : 장준후 작가.. 강정이 낳은 또 하나의 예술가 / 나비
- 연재_쿠바기행⑤ : 쿠바에서 농사는 삶의 평화를 지키는 혁명의 동력 / 안병순
- 회원마당 : 울부짖는 산하 / 권병길
- 칼럼 : '양민 담론'과 반공이데올로기 / 김진환
- 칼럼 : 책 소개 - 동북아시아 열국지
- 세상툏아보기 :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무엇이 문제인가? / 유영재
- 쓴소리 단소리 : 118호 소식지를 읽고 - 카르페 디엠(carpe diem) / 인천평통사
- 현장 : 57만이 사는 부평미군기지 주변에 다이옥신 매립! / 김강연

120호, 2012. 11-12



- 여는글 :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2010억 원 전액 삭감해요!
- 여는글 : 평화대통령 뽑아 2013년을 평화협정 원년으로 만들어요!
- 특집_제주해군기지 : 정의로운 법을 세우기 위해 법학자가 택한 것은 불복종 운동!!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선 신용인 교수
- 특집_제주해군기지 : 전쟁터에 핀 꽃, 들꽃 님 "강정을 꽃밭으로 가꾸다." / 나비 강정지킴이
- 가고 싶은 그 곳, 강정의 명소 ② : 할망물다방과 구멍가게 / 나비 강정지킴이
- 연재_쿠바기행 ⑥ : 혁명의 도시 산타클라라에 나누끼는 영원의 깃발 / 안병순
- 쓴소리 단소리 : 119호 소식지를 읽고 - '달팽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날을 기억하며' /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 회원마당 : '인천평통사를 움직이는 소중한 힘' 한연숙 회원을 만나. / 손선재
- 세상 토포아보기 : 한미일 군사동맹과 동북아시아 신냉전 / 박기학
- 세상 토포아보기 : 중국에 대해 고압적인 말은 이제 그만 / 마이클 스웨인 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 세상 토포아보기 :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와 그 문제점> 한반도 및
- 동북아 평화체제에 역행하는 미국 MD참여 막아내자! / 유영재

121호, 2013. 1



- 여는그림 / 김운성, 김서경
- 새해인사 / 강정구, 문규현, 배종열
- 사람_김관일 회원 : 삼학도와 유달산에, 노오란 평화의 깃발을 준비하며 / 정동석 광주전남평통사, 오미정
- 회원마당 : 나눔의 집을 다녀와서 / 신중훈, 한성대학교 학술모임 '샘들'
- 문화 : 『순비기꽃 언덕에서』를 펴내면서 / 서순희
- 연재_쿠바기행 ⑦ : 쿠바에서 보고 듣고 만난 사람들의 세상사는 이야기 / 안병순
- 세상 토포아보기 : 중일 조어도 분쟁과 미국의 책임 / 박기학
- 세상 토포아보기 : 신태평양전쟁의 전선을 돌아본다 / 백구한, 제리맨더
- 해외평화운동 : 2012년 이와쿠니 국제연대집회 참가기-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동지입니다! / 김종일

122호, 2013. 2

- 여는그림 : 남쪽으로 날아가는 대북전단? / 유정섭
- 사람_김연태 대표 : 바닥을 기는 칠년쿨, 그 유연함과 겸손함으로, 질기게. / 오미정
- 세상 토포아보기 : 2013년 정세를 전망한다 / 유영재
- 칼럼 : 점점 더 멀어져가는 한반도 평화협정 / 김진환



- 회원마당 : 영화 ‘남쪽으로 튀어’를 보고 /손선재
- 연재 - 돌가루 여사의 돈돈돈① : 무기사느라 날린 돈, 고교 수업료 내지 못한 학생들의 등록금
- 연재_쿠바기행 ⑧ : 미국의 반인권적 봉쇄를 뚫고 자유와 평화를 실천하는 쿠바! - 평등한 자유에 대한 무한 사랑은 춤과 음악이 넘치는 연대의 밤에서 - /안병순
- 연재_중국위협론의 진실① : 중국의 국방비 증액이 정말 ‘위협’일까? /다오카 순지
- 해외평화운동 : 한국전쟁을 끝내야 할 때! /도로시 오글

123호, 2013. 3



- 청년기자단의 현장탐방 : 대추리와 쌍용차, 평택 현장에 다녀와서 /이우성
- 사람 : 송진탐에 오른 쌍용차 한상균 회원 /오미정, 한상진
- 사람 : 김창환 대표를 추모하며 /배용한
- 사람 : 이종필 대표를 추모하며 /장창원
- 회원마당 : “좌절을 떨치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자!” - 19차 운영위원 총회 /김강연, 한상진, 장해영, 이재호
- 회원마당 : 제주를 구하자! 백 년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제주를 구하자! /양윤모
- 회원마당 : 저렴한 의료비, 교육비가 독이었을까? 장기독재와 빈부격차로 그늘진 말레이시아를 엿보다 /최경순
- 퀴즈 : 숫자로 보는 평화누리 통일누리
- 광고 : 영화로 평화 마주하기
- 연재_중국위협론의 진실② :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은 실제 전력일까? 아니면 과시용일까? /타오카 순지
- 연재_돌가루 여사의 돈돈돈② : 무기 장사꾼들 커미션 없애고 노인연금 20만원 제대로 받아보자 /박석분
- 연재_쿠바기행⑨ : 볼리바르의 인류애적 혁명의 불꽃이 쿠바와 남미를 사르다. /안병순
- 해외평화운동 : 전쟁연습을 중단하라! 평화협상을 시작하라!
- 쓴소리 단소리 : 122호를 읽고 /양윤모

124호, 2013. 4



- 사람 : WCC 총회를 준비하는 조현정 목사를 만나 /오혜란
- 사람 : 그대들은 쓴소리단소리 하는 사람들. 아니, 참여하는 사람들 /오미정
- 청년기자단의 현장탐방 : 봄의 시작, 청년 모임의 시작 - 3월 16일 서울 청계산 매봉을 등산하다 /조정현
- 세상 톺아보기 : 한반도 정세, 전쟁위기의 장기화?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오혜란
- 연재_중국위협론의 진실③ : 중국의 대만무력통일론은 사실이고 현실성이 있는가? /박기학
- 연재_쿠바기행⑩ : 쿠바에서 만난 세계의 노동자들, 국제연대를 통해 다른 세상을 꿈꾸다 /안병순
- 연재_돌가루 여사의 돈돈돈③ : 우리 어머니의 평화안보론 /박석분
- 칼럼 : ‘북한의 길’과 ‘미국의 길’ /김진환
- 칼럼 : 높은 주가에 취해 있을 때인가 - 아베노믹스가 걷는 길 /우에쿠사 가즈히데
- 퀴즈 : 숫자로 보는 평화누리 통일누리
- 현안 : ‘방위비분담금(미군주둔비부담금)’ 15문 15답
- 현안 : 주한미군 3만 7천명으로 늘어나 /유영재

125호, 2013. 5



- 청년기자단의 현장탐방 : 내일의 역사를 만들어갈 젊은 청년들, 5.18을 경험하다 /김동균, 김지수
- 사람 : 아동문학가 안학수 선생 /오미정
- 사람 : 강정평화 지킴이
- 연재_정전 60년에 봐야할 영화① : ‘디제시스 공간안에 갇혀버린 가족’, 태극기 휘날리며를 다시 본다! /김균열

- 연재_중국위협론의 진실④ :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맞출 수 있을까? /평화통일연구소
- 연재_돌가루여사의 돈돈돈④ : 미군에게 주는 돈만큼 불행해지는 우리 아이들 /박석분
- 문화 : 서평;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강정구
- 세상 톺아보기 : 한반도 정세 전환 기대에 찬물 끼얹은 한미정상회담 /유영재
- 제안 : 2기 평화협정 실현운동 ; 평화 홀씨 사업 /오혜란
- 현안 :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국가적 재앙만 불러와, 박근혜 정부는 미국 MD 참여를 즉각 중단해야! /고영대
- 현안 : '방위비분담'은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산물 /박기학
- 퀴즈 : 숫자로 보는 평화누리 통일누리
- 회원마당 : “과거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이다” 개항 130주년, 만국공원이 자유공원이 된 사연? /강현구
- 회원마당 : 근대사의 아픔 덕수궁을 가다. /심영오

126호, 2013. 6



- 청년기자단의 현장탐방 : 효순이, 미선이 11번째 추모제를 처음으로... /이우성
- 청년기자단의 현장탐방 : 시민추모비 '소녀의 꿈' 건립 경과보고
- 현안 : “한국군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 참가는 이미 미 MD편입 의미” [인터뷰]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김도균
- 현안 : 차세대 전투기 도입,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조승현
- 연재 : 중국위협론의 진실 ⑤ 남중국해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까? -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들의 분쟁 /평화통일연구소
- 연재 : 돌가루여사의 돈돈돈 ⑤ 엠디(MD)는 밀빠진 독에 물붓기 /박석분
- 제안 : 2기 평화협정 실현운동, 평화 홀씨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장도정, 유정섭, 황운미, 이주은
- 제안 :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배종열, 문규현, 강정구
- 평통사 20장면_①, ② : 반핵평화운동연합과 창립
- 칼럼 : 대화, 하자고 할 때 합시다 /김진환
- 세상 톺아보기 : 한반도 정세 : '북한 위협론'의 허구성 /아사이 모토후미
- 쓴소리 단소리 : 5월 회지를 읽고 /부천평통사 차돌분회
- 해외평화운동 : 북 아메리카인들 삶의 군사화 /브루스 개그논
- 회원마당 : 태백산맥 역사기행, 역사의 길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 /양창흠
- 회원마당 : 태국의 푸켓으로 가족여행을 /손종욱

127호, 2013. 7-8



- 특집_7.27 평화홀씨마당 : 평화의 작은 씨앗 /문규현
- 특집_7.27 평화홀씨마당 : 정전체제는 한국사회를 집어삼키는 괴물 /백창욱
- 특집_7.27 평화홀씨마당 : 통일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장해영
- 특집_7.27 평화홀씨마당 : 평화의 걸음걸이 /나희덕
- 특집_7.27 평화홀씨마당 : [인터뷰] 합창홀씨, 청년홀씨 /유정섭, 이주은
- 특집_7.27 평화홀씨마당 : 평화협정의 미래가 이곳에 /조정현
- 특집_7.27 평화홀씨마당 : 마이크를 사수하라 /김동균
- 회원마당 : 통일을 향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단의 미국 방문 보고 /조현정
- 세상 톺아보기 : 'NLL은 영해선'이라는 우상 깨야 평화 온다 /유영재
- 현장_강정평화대행진 : 2013 강정생명평화 대행진 참가기 /한상진
- 연재 : 돌가루여사의 돈돈돈 ⑥ 죽어나는 건 민생뿐 /박석분
- 연재 : 정전 60년에 봐야할 영화 ② 웰컴 투 동막골 /김균열
- 연재 : 중국위협론의 진실 ⑥ '신방위계획대강'에 대한 '전문가들'의 위험한 제안
- 현안 : '북 위협 증가'를 구실로 한 미국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와 부당성 /박기학
- 제안-공부하는 평통사 : '공부하는 평통사' 이렇게 합시다. /박석분

- 해외평화운동 : '해전' 이집트의 폭주에 곤혹스런 '주인' 미국 - 타오가 순지
- 칼럼 : 비정규직의 눈물과 해고자의 죽음이 넘치는 불의한 현실!! /안병순
- 쓴소리 단소리 : 6월 회지를 읽고 /부천평통사 차돌분회
- 평통사 20장면_③, ④ : 국방비 삭감운동과 1995 NPT 참여

128호, 2013. 9



- 사람_오기성회원 : “10년쯤 지나보니, 평통사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오미정
- 현안 : 박근혜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공약도 파기? /오혜란
- 현안 : 을지프리트가디언, 차세대전투기, 미군주둔비 부담 협정 진행 경과
- 연재 : 중국위협론의 진실⑦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없다(2) /로렌 톰슨, 성재상
- 연재 : 돌가루여사의 돈돈돈 ⑦ 바보야, 문제는 군축이야! /박석분
- 정전 60년에 바야할 영화 ③ ‘썬 레드라인’을 보고... /김균열
- 해외평화운동 : 미국의 진정한 목표는 시리아가 아니라 이란이다. /로버트 피스크, 박석진
- 칼럼 : 노동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핏빛 외침 ‘함께 살자!!’ /안병순
- 칼럼 : 통일 이게 다 그 몫을 전쟁을 끝내지 못한 탓입니다 /김진환
- 쓴소리 단소리 : 7-8월 회지를 읽고 /부천평통사 차돌분회
- 평통사 20장면_⑤, ⑥ : 소파 전면 개정 요구(2001),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저지(2001)

129호, 2013. 10



- 예수를 따르는 자 되십시오. /홍근수
- 고 홍근수 목사 약력
- 당신의 말은 짧았지만, 정곡이었고 당신의 눈은 넓었고, 또 깊었습니다. /김상근
- 베를린에서 부산까지 평화열차에 영으로 함께 하기 위해 저를 불러들인 것 /조현정
- 의인 한사람은 가고.. 수많은 홍근수들이 일어나는 자리이길 /김경호
-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근수 목사님 /문규현
- 평화와 통일의 사도 고 홍근수 목사님. 목사님, 편히 가십시오. /양성운
- 가시밭길 걸을지언정 /김민용
- 우리 모두의 사표이신 홍근수 목사님을 그리면서 /강정구
- 과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실천운동에 최선을 다 하신 홍근수 목사님 /이창복
- 민주화운동 한가운데 선 예언자 예레미야 /이재정
- 통일운동 십자가 진 ‘실천적 그리스도인’ 잠들다 /김보근
- 화보 : 해맑은 웃음으로.. 평통사와 함께 한 20년
- 경과보고 : 열흘의 여유는 목사님의 마지막 배려였을까? /오혜란
- 추모시 : 홍근수 목사님께 /임종철
- 내 삶의 일부가 텅 빈것 같습니다. /배종열
- 민중권리의 옹호자이셨던 목사님 /박석운
- 홍목사님을 영원한 맑스주의자로 기억합니다. /오세철
- 목사님과의 인연과 성찰 - 김상균
- 순수 청년 홍근수 목사님! /이경아
- [추모 글 모음]
- 평화와 통일의 사도 홍근수 목사 통일사회장 장례위원 명단

130호, 2013. 11



- 여는 그림 : 한미일 삼각동맹
- 세상 톺아보기 : 한미 당국은 정녕 한반도 핵전쟁을 원하는가?
- 사람 : “대륙으로 가자”고 하는 정동영 전 장관을 만나다
- 서평 : 매일매일 통일을 쌓는 개성공단, 그 10년 후
- 기고 : 평통사는 왜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공격을 받아야만 했나?
- 쌀은 살이고, 열이고, 문화이고, 주권이고, 통일이다.
- 부드러운 미소, 강철 같은 신념, 화산 같은 열정을 가진 조병규 회원님을 만나다.

- 칼럼 :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죽이기
- 기고 : 강정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
- 자료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
- 연재 : 돌가루여사의 돈돈돈 ⑧ 10만원이면 이루어지는 꿈

131호, 2013. 12-2014. 1



- 회원마당 : 평통사 청년들의 안녕하십니까? /조정현, 김태현, 오민주, 박미성
- 새해 인사 : 갑오농민혁명 120돌을 맞아 /강정구
- 세상 톺아보기 : '자위권 용인' 박근혜, 김영삼보다 후퇴했다.
- 세상 톺아보기 : 이제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로 나아가는가? /고영대
- 세상 톺아보기 : 핵이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일까(1) /박기학
- 세상 톺아보기 : 저항은 밑음의 맥박이다 "수치를 당할 자는 바로 그들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세상 톺아보기 : 대한민국 제주도민에 대한 지지 결의안 /버클리 시의회
- 칼럼 : 통일: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니죠? /김진환
- 칼럼 : 노동: 민주노조를 짓밟는 부정한 정권, 노동자.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 /안병순
- 현안 : 정예군화 위해서는 고급장교 인건비 줄여야 /박기학
- 현안 : 미국, 한국민 혈세인 미군주둔비로 3천억원 넘게 이자소득 /유영재
- 기고 : 통일창작동화 '비밀친구' /박종두
- 평통史 20장면_⑦, ⑧
- 회원마당 : 2014년은 안녕 해 보자구!! /최경순
- 회원마당 : 청년사업~ 빵빵 터져라! /이주은
- 회원마당 : 난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조보경

132호, 2014. 2



- 여는 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양진
-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 : 평통사 스무살 청년 /문규현
- 20차 총회 - 3세대 평통사 : 3세대 평통사, 희망의 싹을 틔우자! /오미정
- 20차 총회 - 3세대 평통사 : 청년은 평통사의 희망이요, 평통사는 청년의 희망이다 /서중환
- 20차 총회 - 3세대 평통사 : 2014년 평통사 이렇게 해봐요! /유정섭, 허명석, 김판태
- 20차 총회 - 3세대 평통사 : 회원들이 생각하는 평통사
- 사람 _ 정경호 회원 : 책 『선생님, 통일이 뭐예요?』의 저자를 만나다 /조정현
- 세상 톺아보기 : 2014년은 대전쟁의 해가 되는 것일까? /그레이엄 앨리스
- 칼럼 : 통일 : 고통과 친구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김진환
- 칼럼 : 노동 : 최저임금제가 있다면 최고이윤제도 있어야!! /안병순
- 현안 :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협상, 이 정도면 '백기투항' /박기학
- 논평 : 한미양국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시인 관련 평통사 논평
- 청년평화캠프 : 평통사 청년 평화캠프를 마치고 /허명석
- 청년평화캠프 : 평화야, 놀자! /구동훈
- 평통史 20장면_⑨, ⑩

133호, 2014. 3



- 여는 시 : 봄길 /정호승
- 세상 톺아보기 : '통일대박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유영재
- 칼럼 : 통일 : 민간의 '통일준비'가 시급합니다 /김진환
- 세상 톺아보기 : 거꾸로 가는 '국방개혁' /박기학
- 칼럼 : 노동 : 여성 노동인권의 끝없는 추락 /안병순
- 현안 : 2014 키 리졸브 · 독수리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회담 시작하라! /박석분
- 회원마당 : 김창환 선생 유고집 '숲사람' 출판기념회 유가족 인사의 글 /김수진
- 논평 : 평통사 전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 평통史 20장면_⑪, ⑫
- 소개 : 평화와 통일의 길을 밝혀주는 평화·통일 연구소

134호, 2014. 4



- 여는 그림 : 강정의 품으로 구럼비의 품으로 돌아온 양운모
- 세상툏아보기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한반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박기학
- 논평 :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정당한 평화활동 제재하는 행위 중단해야
- 논평 : 졸속적인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규탄 논평
- 칼럼 : 통일 : '4·12 담화'가 '드레스덴 선언' 거부? /김진환
- 칼럼 : 노동 : 공공의 책임 방기한 민영화, 공공서비스 팔아먹기와 규제 풀기 /안병순
- 기획연재 : 국가보안법 재판이야기 ①
- 기획연재 : “평통사 재판 결과는 우리 사회의 풍향계” /오혜란
- 회원마당 : 2014 평통사 중점사업 워크숍
- 회원마당 : 배우고 나누고 모으고 3세대 평통사, 이렇게 만들어 가는거야!!!
- 평통史 20장면_⑬, ⑭

135호, 2014. 5-6



- 여는 그림 : 평화를 위해 한땀 통일을 위해 한땀 한땀
- 인사말 : 평통사 20년 기록과 10년의 전망
- 인사말 : '스무살 평통사, 가슴이 뛰네' /문규현
- 현안 :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입장 규탄 기자회견문
- 현안 : 재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려는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해외평화운동 :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반대하는 일본의 평화운동 /사코다히데후미
- 세상 툏아보기 : 교토부 교탄고시 우카와에서의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 저지!
- 세상 툏아보기 : 동아시아에서의 미사일 방위망(MD) 확장 반대! /나카무라 요시오
- 세상 툏아보기 : 미군 X밴드 레이더기지 착공 반대! 4·20 교탄고 현지집회 /야마모토 준
- 칼럼 : 통일 : '지정학적 숙명'은 없습니다 /김진환
- 칼럼 : 노동 : 노동을 삼켜 생명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침몰시키다 /안병순
- 책소개 : 유배지에서 예수 읽기 /백창욱
- 기획연재 : 국가보안법 재판이야기 ②
- 기획연재 : 검찰 측 증인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미군철수 /오혜란
- 회원마당 : 평통사 청년 광주기행 참가기 /강정길, 오민주
- 회원마당 : 목포 평화발자국 참가기 /손민원
- 회원마당 : 제8회 인천평화발자국 참가기 /정이수
- 평통史 20장면_⑮, ⑯, ⑰, ⑱

136호, 2014. 7



- 여는 시 : 효순·미선 12주기 추모시 '길' /도종환
- 현장-효순미선 12주기 추모제 : 고 신효순·심미선 양 12주기를 기리며 /이은선
- 현장-효순미선 12주기 추모제 : “자주·평화의 희망으로 피어나”
- 현장-밀양 긴급지원활동 : 밀양을 지켜라! 평화를 지켜라! /조정현
- 사람 : 안동평통사의 새 대표님을 만나다. /김영재
- 세상 툏아보기 : 누구를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인가? /고영대
- 현안 :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각의결정 저지 긴급 평화행동
- 현안 :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부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동전의 양면
- 칼럼 : 통일 :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김진환
- 칼럼 : 노동 : 다시 맞는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의 시대 /안병순
- 기획연재 : 국가보안법 재판이야기 ③
- 기획연재 : 키 리졸브 연습 반대가 이적동조라고? /오혜란

- 회원마당 : 무기장난감을 평화의 선물로 바꿔주기 행사를 마치며 /한석문
- 회원마당 : <인천평화발자국> 부평의 역사 속을 걷다 /이목연
- 평통史 20장면_⑬,⑭

137호, 2014. 8



- 특집 7.27 평화홀씨마당 :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삶의 증언
- 특집 7.27 평화홀씨마당 : 평화의 길! 통일의 길! /문규현
- 특집 7.27 평화홀씨마당 :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 /장해영
- 특집 7.27 평화홀씨마당 :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2014 평화홀씨 다짐
- 특집 7.27 평화홀씨마당 : 평화가 춤춘다 통일이다. /길원옥
- 특집 7.27 평화홀씨마당 : '2014 평화홀씨展'을 마치고
- 특집 7.27 평화홀씨마당 : 100인 합창 '평화의 노래로 세상을 깨우다 /박종렬
- 청년홀씨,당당히 평화와 통일을 택하라! /심수민
- 7.27 평화홀씨마당을 다녀와서 /이종환
- 세상 톺아보기 : 국방부, 주한미군 사드배치 막아야 /고영대
- 현장 : 강정지킴이 '멧부리 박'을 만나다 /김영재
- 현장 : 강정은 끝나지 않았다 /최우식
- 칼럼 : 통일-우리가 바로 '12척의 배'입니다 /김진환
- 칼럼 : 노동-잔인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이럴 수는 없다 /안병순
- 회원마당 : 평통사 1기 청년인턴십을 마치고 /김한나

138호, 2014. 9



- 특집 평통사 20주년 : 인사말 /문규현
- 특집 평통사 20주년 : 평화통일연구소 10주년을 맞아 /이삼성
- 특집 평통사 20주년 : 20주년을 돌아보며 /임종철 등
- 특집 평통사 20주년 : 세월호 유족이야기 /정혜숙
- 특집 평통사 20주년 : 평통사와 함께 한 사람들 /권정호 등
- 특집 평통사 20주년 : '홍근수 상'을 제정하며 /조현정
- 특집 평통사 20주년 : 축하 및 해외 연대메세지 /신승철, 노돛돌, 사코다
- 특집 평통사 20주년 : '2024보고서'에 대한 의견 /김형태
- 특집 평통사 20주년 : 사진으로 보는 20주년 기념행사
- 현안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간 이유는? /조승현
- 해외평화운동 : 이와쿠니 국제행동의 날 /AWC 일본 연락회의
- 해외평화운동 :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반대 행동을 더욱 활발하게 실천하자! /다무라 준겐
- 칼럼 : 통일 : 여전히 남과 북이 패를 갈라 /김진환
- 칼럼 : 노동 : 사회안전망을 붕괴시켜 부자 세상 만들기 /안병순
- 회원마당 : 부산 회원의 날 '세월호 전시회 열다' /성춘석, 박석분
- 회원마당 :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한 위로와 기억 미사 /황동환

139호, 2014. 10



- 특집_홍근수 대표 추모 1주기 : 여는 그림 - 홍근수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황윤미
- 특집_홍근수 대표 추모 1주기 : '홍근수상'을 제정하며 /조현정
- 특집_홍근수 대표 추모 1주기 : 세상의 증언자 : 고 홍근수 목사 /에스터 멘 박사
- 특집_홍근수 대표 추모 1주기 : 고 홍근수 목사 1주기 추모식 /황윤미
- 사람_인터뷰 : 세월호 단식 43일, 김홍술 목사를 만나 /김강연
- 칼럼_통일 :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김진환
- 세상 톺아보기 : 제46차 SCM분식_군사 주권 포기한 박근혜 정부
- 세상 톺아보기 : 비핵무기시대 건설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출발점 /이삼성
- 현안 : F-35도입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해야 /조승현
- 기획연재 : 재판이야기④ 원세훈은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인가! /정은주
- 회원마당 : 연재① 외세향전의 민중진지 구찌터널을 찾아서 /안병순

140호, 2014. 11-12



- 여는그림
- 특집 - 2014 대학생청년 평화아카데미 / '청년, 세상을 두드리다!' 기획단 참가기 / 허명석, 이우성, 민경환, 김한나
- 특집 - 2014 대학생청년 평화아카데미 / '나는야 평통사 강사단~' / 정경호, 장해영
- 특집 - 2014 대학생청년 평화아카데미 / 미니인터뷰 / 김영훈 전 민주노총위원장 미니인터뷰
- 세상툴아보기 / 한국, 미국 엠디에 전면 참여하고 중국까지 겨냥하나 / 고영대
- 성명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
- 칼럼-통일 / 분단의 망령, 레드콤플렉스
- 현안 - 2015국방예산 따져보기 / 과도한 장교인건비부터 줄여야 / 박기학
- 현안 - 2015국방예산 따져보기 / 1조원 챙긴 주한미군...글로벌 '호갱'된 한국 / 박기학
- 현안 - 2015국방예산 따져보기 / 2015 국방예산 삭감 평화행동
- 해외평화운동 / '이와쿠니 행동2014' AWC 국제연대집회 참가기 / 김연태
- 회원마당 / 평통사 임원상근자과정 2014 /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평통사운동도 그렇다!'
- 회원마당 / 베트남 여행기 연재 ② / 안병순

141호, 2015. 1



- 여는 시 / 장작불 / 백무산
- 새해인사 / 분단 70년을 맞으면서 / 강정구
- 새해인가 / 양떼 회원들의 새해인사 / 박상희, 김성태, 이봉원, 황선희, 김명일, 김금옥
- 현안 / 누구를, 무엇을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인가? / 고영대
- 현안 / 물증도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 끼얹은 오바마
- 기획연재 / 국가보안법 재판이야기 ⑤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평통사 활동" / 주정숙
- 기획연재 / 작전통제권 바로 알기① / 평화통일연구소
- 회원마당 / 사진으로 보는 청년 평화캠프 / 이주은
- 회원마당 / 청년 평화캠프 참가기 / 김유진
- 회원마당 / 베트남 여행기 연재③ / 안병순

142호, 2015. 2



- 여는 그림
- 21차 운영위원 총회 / 희망을 가진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 문규현
- 21차 운영위원 총회 / 사진으로 보는 21차 운영위원 총회
- 현안 / 8년간 660억 혈세 챙겼는데, 알고 보니 미국 기업? / 박기학
- 현장 /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이 휩쓸고 간 강정마을을 다녀와서 / 김영재
- 칼럼 - 노동 / 장노년·은퇴노조 등의 출현은 시대적 요구 / 안병순
- 특집 - 2015정세전망 / 전략적 동요와 불안정이 증대되는 동북아와 한반도,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의 획기적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정세 추동해야 / 고영대
- 세상툴아보기 / 한반도 평화 위한 '비핵무기금지대화' 논의 이끌어야 / 한승동
- 세상툴아보기 /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비핵무기금지대 토론회 / 오혜란
- 기획연재 / 작전통제권 바로알기② / 평화통일연구소

143호, 2015. 3



- 사람 / 광양평통사 창립 '오종효' 대표를 만나다 / 정동석
- 책소개 / "해고는 살인이다. 응답하라 쌍용차!" 이창근의 '해고일기'
- 현안 / 사드(THAAD)가 북핵미사일 대응용이라고? / 오혜란
- 기고 / 남북관계의 해법은 '성의있는 노력'과 '변함없는 지속성' / 유동호
- 자료 / 박근혜 정권은 흡수통일 망상을 버려라!
- 현장 / 일본 전쟁범죄 책임 묻는 게 도발이라고? / 김종일
- 기획연재 / 작전통제권 바로 알기③ / 평화통일연구소

- 세상툴아보기 / 핵확산금지조약(NPT) 9차 평가회의와 평통사 대응 계획 / 오미정
- 칼럼 - 노동 / 장그래를 살려야 서민이 살고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 / 안병순
- 회원마당 / 부산 시민들이 만드는 평화발자국 / 최광섭
- 회원마당 / 못다한 꿈, 평화통일로 피어나라 / 박석분

144호, 2015. 4-5



- 특집 - 2015 NPT 재검토회의 / 핵확산금지조약(NPT) 9차 재검토회의의 대응 활동 / 오혜란
- 특집 - 2015 NPT 재검토회의 /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인정, 조사, 사죄, 배상을 요구한다! / 심진태, 김봉대, 최봉태
- 특집 - 2015 NPT 재검토회의 /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오바마 정부의 무능, 위선과 싸워라 / 고영대, 김한나
- 특집 - 2015 NPT 재검토회의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지대화로 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자! / 참여연대, 평통사
- 특집 - 2015 NPT 재검토회의 / 한일 미사일방어 현황과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MD) 및 아시아·태평양 단계적 탄력적 접근(APPAA) / 고영대
- 평화행동 결산 / 사드배치 반대 집중 평화행동
- 자료 /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① / 유영재
- 현안 /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길 트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 박기학
- 사람 / 한상균 민주노동당 위원장 / 김강연, 한상진
- 칼럼 - 노동 / 권자(權資)이권동맹의 핵심, 엘리트 부패카르텔을 깨야 노동자가 살아 / 안병순
- 회원마당 / 무기장난감을 평화의 선물로 / 강정아, 김영수, 남미영

145호, 2015. 6



- 여는시 / 다시 그날은 오는데 / 신경림
- 현안 /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50주년의 의미와 과제 / 고영대
- 현안 / 신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 안보법제 재개정의 문제점 / 조승현
- 현안 / 미군이 불법적 반인도적 생물무기 탄저균을 반입한 이유는? / 오미정
- 세상툴아보기 / 핵확산금지조약(NPT) 9차 재검토회의의 대응활동(2) / 오혜란
- 해외평화운동 / 일본 교탄고 미군 X밴드 레이더 반대 투쟁 평화활동가 압수수색 및 체포에 대한 아시아공동행동(AWC) 항의성명
- 현장 / 효순미선 13주기 추모행사 "미선이 효순아 평화통일의 냇으로 살아나라!"
- 자료 / '한미당국의 거짓말' 밝혀줄 소송을 시작합니다 / 유영재
- 기획연재 / 작전통제권 바로 알기④⑤ / 평화통일연구소
- 사람 / 내 코가 석자인데(?)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노동자 / 스타케미칼 홍기탁 부위원장, 오혜란
- 칼럼 - 노동 / 생활임금제는 비정규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가 / 안병순
- 회원마당 / 21살 평통사의 21번째 지역 마산창원진해 평통사 창립 / 조광호
- 회원마당 / 익산청년평화발자국 / 허명석
- 회원마당 / 평화의 길 어디까지 왔나?

146호, 2015. 7-8



- 여는시 / 마침내 때가 되었으니 / 이원규
- 특집 - 광복70년 분단70년을 맞아 / 8·15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결의문
- 특집 - 광복70년 분단70년을 맞아 /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부정한 아베 정권의 이른바 '전후 70년 담화' 강력히 규탄한다.
- 특집 - 광복70년 분단70년을 맞아 / 해방 70주년, 한일협정 50주년에 분단과 양극화를 생각한다 / 이부영
- 세상툴아보기 / 사드 한국 배치와 그것이 동북아에 미칠 파장 / 고영대
- 현안 - 일본현지활동 /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교가미사키 엑스밴드(X-band) 레이더 기지를 가다! / 김판태
- 현안 - 일본현지활동 /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안보법제 폐기! 일본 현지 평화행동 보고 / 박석분

- 해외평화운동 / 일본 안보법제 폐기 투쟁 / 사코다 히데우미
- 해외평화운동 / '크로스 DMZ'에 대한 미국 백인 여성의 감상 / M.브린튼 라이크스
- 현장 /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 김영재
- 기획연재 / 작전통제권 바로 알기⑥,⑦ / 평화통일연구소
- 칼럼 - 노동 / 노동은 없고 재벌과 부자만 있는 민주공화국의 실상 / 안병순
- 회원마당 - 7.25평화홀씨 마당 / 평화와 통일을 하늘에 매달다! / 문홍주
- 회원마당 - 7.25평화홀씨 마당 / 청소년 평화홀씨 선언에 참여하고 / 차현주
- 회원마당 - 7.25평화홀씨 마당 / '2015 평화홀씨展'을 마치고 / 작가홀씨

147호, 2015. 9



- 현장 / 사드배치 반대! 일본집단자위권 반대! 50개 도시, 50일 평화행동 어디까지 왔나요?
- 해외평화운동 / 일본 전쟁법안 반대! 국회 10만 명 대행동 / 사코다 히데우미
- 현안 / 침략과 전쟁의 안보법안 강행한 아베정권 규탄!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안보법안 폐기하라! / 고영대
- 특별기획 - 9.19공동성명 10주년 기념토론회 / 9.19공동성명에 비춰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 특별기획 - 9.19공동성명 10주년 기념토론회 / 한반도 평화협정체제와 동북아 비핵무기금지대화 : 상호의존적 역할의 연계와 구분 / 이삼성
- 기획연재 / 작전통제권 바로 알기⑨,⑩,⑪
- 칼럼 - 노동 / 재벌의 재벌을 위한 정부에 의한 노동개혁은 역방향으로! / 안병순

148호, 2015. 10



- 여는글 / 우리의 평화가을 / 최광섭
- 현안 / 국민 몰래 일본군 끌어들여 대북 선제공격 도모하려는 국방부-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규탄하며 / 국방부
- 해외평화운동 / 일본 노동자 민중은 아시아 노동자 민중과 연대하여 침략전쟁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 사코다 히데우미
- 해외평화운동 / 미주 평화운동 소식
- 현안 / 한국민 혈세로 돈놀이 한 커뮤니티뱅크(CB)는 미 국방부 소속은행으로 확인, 이자소득 국고 환수해야 / 박기학
- 세상툰아보기 / 중국 겨냥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 고영대
- 현장 / 50개도시, 50일 평화행동 결산②
- 회원마당 / '성남이 뒤집어지도록' 된 30일 동안의 평화행동 / 서덕석
- 회원마당 / 일본, 자위대, 어디로 가나? / 이재호
- 칼럼 - 노동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결사의자유권'도 비준 않는 신생국 수준의 노동후진국 / 안병순
- 기획연재 / 작전통제권 바로알기⑪
- 홍근수 전 상임대표 2주기 추모행사

149호, 2015. 11



- 여는글 / 고맙습니다
- 현안 /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한국의 자충수 / 오미정
- 현안 / 사드 한국 배치가 가져올 동북아 전략·지역적 안보지형의 변화 가능성 / 고영대
- 해외평화운동 / 이지스함 건조 조선소 앞 항의행동 / 브루스 개그논
- 세상툰아보기 / 남한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을 겨냥한 일본 안보법 제·개정 / 평화통일연구소
- 분석 / 장성 감축, 숫자놀음 안 된다 / 박기학
- 기획연재 / 작전통제권 바로 알기⑫,⑬

- 칼럼 - 노동 / 민주노총 말살하려는 <브그ㅎ>정권, 민심의 역풍으로 무너질 수도! / 안병순

150호, 2015. 12



- 여는 시 / 한 방울의 물 / 안학수
- 특집 - 2015 이와쿠니 국제집회 / 이와쿠니 주일미군기지 강화 현장과 “살아 있는 일본 풀뿌리 평화운동”을 보고 오다 / 유정섭
- 현장 / 제주해군기지 반대 9년째, 마을 주민의 뜻 하나로 모아낸 강정마을회장 선거
- 현장 /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응원합니다
- 2015 대학생청년 평화아카데미 / ‘평화 GO함!’ 참가기
- 회원마당 / 구로노동평화발자국을 소개합니다 / 전성표
- 기획연재 / 작전통제권 바로알기⑭,⑮
- 칼럼 - 노동 /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일자리를 따듯하게! / 안병순

151호, 2016. 1



- 논평 / 북의 수소탄 실험 관련 평통사 논평
- 시론 / 양비론이 아니라 균형이다 / 유영재
- 입장 /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 현안 /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 12.28 한일 위안부 야합 / 오미정
- 현안 / 평화의 파수꾼이 된 ‘평화의 소녀상’ / 황동환
- 현안 / ‘소녀상’ 작가가 본 한일 위안부 합의 / 김서경, 김운성
- 보고 / 국방예산 삭감 돌아보기 / 조승현
- 현장 / 치명적 생물무기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 중단해야 / 현필경
- 현장 / 국민을 이긴 독재는 없다 / 이정숙
- 칼럼 - 노동 / 노동자에게 고통만 강요하는 박근혜 노동개악 / 박석민
- 새해다짐 / 2016년 평화를 열고, 통일을 열어~

152호, 2016. 2



- 논평 / 북의 인공위성 발사 관련 평통사 논평
- 특집 - 2016 정세전망 ① / 동북아 정세 -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 고영대
- 특집_2016 정세전망 ② / 한반도 정세 - 1) 북한정세 2) 북미관계 3) 남북관계 / 고영대
- 특집_2016 정세전망 ③ / 아태 지역 정세 - 1) 아태 지역의 군사적 대결 구도 2) 아태 지역의 경제적 대결구도 / 고영대
- 현안 / 사드(THAAD), 이것만은 알아! Q&A / 오미정
- 22차 운영위원 총회 / 어려움을 기회로! 전면적 혁신으로 자주 평화 통일의 활로를 열자!
- 22차 운영위원 총회 / 2016 임원 워크숍 열어, 내가 바로 평통사! 대표 운영위원이 출선수범
- 회원마당 /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삶터, 합천을 다녀오다 / 이우성

153호, 2016. 3



- 시론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만이 해법 / 유영재
- 현안 / 2016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서 실시된 주요 훈련의 문제점 / 조승현
- 현안 / 2016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대응활동과 과제 / 조승현
- 현장 / “아물지 않은 상처, 되풀이할 수 없는 치욕의 역사” / 나가사키-사세보 평화발자국 기획단
- 특집 - 달려라 평화행동 / 사드 한국 배치 전망, 한미 간 논의 사실상 마무리됐을 가능성 높아 / 오혜란
- 특집 - 달려라 평화행동 / 1차 달려라 평화행동 결산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듯, 역시 지속적인 현장 실천만이 답”
- 특집 - 달려라 평화행동 /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 대구 - 남한 방어에 쓸모가 없다고? 그럼 난 사드 반대세 / 김찬수
- 특집 - 달려라 평화행동 /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 경북 칠곡 - 왜관 읍민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하며 / 황동환

- 특집 - 달려라 평화행동 /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 부산/기장 - 핵발전소도 기막힌데, 사드 배치 후보지라고? / 박석분
- 특집 - 달려라 평화행동 /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 군산 - 군산 아니라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되지 / 김판태
- 특집 - 달려라 평화행동 /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 평택 - 탄저균에 사드 전자파까지... / 현필경
- 사람 - 인터뷰 /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평통사”- 광주평통사 서경훈 회원 인터뷰 / 정동석
- 사람 - 인터뷰 /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에게 듣는다 - “평화협정 체결운동에 나선 노동자들” / 김강연
- 칼럼 - 노동 / 경제위기 시대의 대안... 최저임금 1만 원/ 한상진
- 세상툰아보기 / 새누리당 압승 막기 위한 모든 방법 찾아야 / 유영재

154호, 2016. 4



- 사람 / “나 하나 잘하든, 못하든 함께 채우고 도움을 주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 - 합창홀씨 순천평통사 박종렬 회원을 만나 / 정동석
- 세상툰아보기 20대 총선결과와 과제 / 유영재
- 분석 / 사드 배치 예정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사드 관련 입장은? / 조승현
- 현장 / “우리 강정주민 다 죽이고 가져가라!” - 해군의 부당한 구상권 청구에 맞서 천막 마을회관 친 강정 / 김영재
- 현장 / “여기는 사격훈련장이 아니라 전쟁터 그 자체입니다.” - 영평로드리게스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아우성 / 조승현, 이우성
- 노동 / “한상균은 무죄다! 구속자를 석방하라!”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첫공판 열려
- 회원마당 / 안동 평화발자국 - 과거를 찾아 오늘을 비추며 시대를 넘어 흔적을 찾아 / 조한웅

155호, 2016. 5



- 사람 / “평화통일운동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씩 꾸준히 밀고 나가야” - 마산창원진해평통사 김용환 대표를 만나 / 박석분
- 시론 / 5월에서 통일로 당당히 나아가자 / 김병균
- 특집 -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 오바마, 한국인 위령비를 찾아 사죄해야 오해란
- 특집 -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인정, 조사, 사죄, 배상을 요구한다!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 Letter to U.S. President Obama - We Demand Recognition, Investigation, Apology and Reparation for Korean Victims of the Atomic Bomb!
- 특집 -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말한다 / 김강연, 이우성
- 특집 -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에서 평통사에 감사패 수여
- 해외평화운동 /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9조를 부수지 마’ / 길운형
- 현장 / 사드배치 반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저지! 2차 달려라 평화행동 결산 / 조승현
- 현장 / 사드 한국 배치 저지를 위한 전국 대책기구로 힘을 모으자 / 오미정
- 현장 / 사드 배치 반대 원주대책위 원주시민연대 이선경 대표를 만나
- 세상툰아보기 / 무식한 트럼프, 허리 휘는 한국민 / 유영재
- 회원마당 / 2016 청년 5.18 광주평화발자국 - 기억하는 우리, 행동하는 우리! / 이주은, 홍영애, 강한별, 유진웅

156호, 2016. 6



- 여는시 / 바람도 가져가지 못하는 꽃송이 / 김용택
- 시론 / 6·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이하여 / 이봉원
- 세상툰아보기 / 사드 한국배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고영대
- 해외평화운동 / 일본 교가미사키 미군 통신소(사드 레이더 기지)를 가다 / 오혜란
- 해외평화운동 / ‘전쟁법 폐지! 아베 타도! 반전 실행위원회’ 초청 도쿄 방문기 / 황윤미
- 현장 / 신효순 심미선 14주기 추모제를 다녀와 / 김광진
- 현장 /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미대사관 앞 200차 집회 / 조승현

- 기고 /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에 평화 책임을 물어야 / 권정호
- 현장 / 한국인 원폭피해자들과 함께 히로시마를 다녀와서 / 서종환
- 노동 / 불의한 권력은 결코 노동의 희망을 꺾을 수 없다
- 회원마당 / 평화홀씨마당을 준비하는 홀씨들 / 김태순, 김용재, 김난영, 대구합창홀씨
- 회원마당 / 걷고, 느끼고, 배우는 부천 평화발자국 / 정현희

157호, 2016. 7-8



- 여는그림 / 서커스 / 양희성
- 특집 - 사드가고 평화오라 /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 막을 수 없다 / 고영대
- 특집 - 사드가고 평화오라 / 만화 '사드 배치의 진실' / 이진석
- 특집 - 사드가고 평화오라 /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철회 운동을 기록하며 - 천용길
- 특집 - 사드가고 평화오라 / 똑똑히 보아라, 우리가 바로 평화다 / 김수상
- 특집 - 사드가고 평화오라 / 평화는 결코 '무기라는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 박현동 블라시오 아바스
- 특집 - 사드가고 평화오라 / 사드 배치 논란,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 / 이우성
- 2016 평화홀씨마당 / 사드 한국 배치 저지와 일본군 한반도 재침탈을 막는데 평통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 문규현
- 2016 평화홀씨마당 / 사진으로 보는 정전 63년, 평화홀씨마당
- 현장 /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며 / 히라오카 다카시

158호, 2016. 9



- 여는그림 / 사드 배치 철회 12시간 평화행동 / 김강연
- 논평 / 북의 5차 핵실험에 대한 평통사 논평
- 세상툭아보기 /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미국 엠디(MD) 참여다 / 고영대
- 세상툭아보기 / 우리 국민 세금으로 '사드 운영비' 부담하게 되는 일 막아야 / 박기학
- 사드가고 평화오라 / [르포] 성주읍 초전면 소성리 이야기 / 김수상
- 사드가고 평화오라 / '사드와 성지는 공존할 수 없다' 원불교 김선명 교무를 만나 / 조승현
- 사드가고 평화오라 / 국방부의 통일뉴스 만평 언론중재 신청 관련 논평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현장 / 대한민국 전체가 강정마을이고 세월호, 성주로 변해가고 있다 / 조경철
- 노동 /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 저자 임재춘씨를 만나다 / 이주은

159호, 2016. 10



- 여는그림 / 고 백남기 농민을 애도하며
- 평화행동 / 사드배치 철회 10월 집중 평화행동 결산 / 이주은
- 평화행동 / 성주촛불 100일, 김천촛불 60일에 즈음한 촛불
- 세상툭아보기 /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의 군사전략적 배경과 의도 / 고영대
- 현안 / 대북 선제타격과 핵 대결을 전면화한 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 오미정
- 현안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임박했다 / 유영재
- 성명 / 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사드가고 평화오라 / 성주촛불 100일을 맞아 "생존,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용서" / 박수규
- 사드가고 평화오라 / 성주·김천 주민 서울 상경 투쟁기 "희망은... 우리에게 있다" / 구자숙
- 사드가고 평화오라 / 10/09 미백악관 답변에 대한 성주, 김천 주민들의 항의 성명
- 사드가고 평화오라 / 오직 평화, '사무여한(死無餘恨)'의 마음으로 / 장형규
- 노동 / 우리들이 함께 파업에 나서는 이유 / 이의용
- 노동 / 파업에 들어가며 국민들께 올리는 철도노동자들의 호소 / 김영훈
- 회원마당 / 베트남 중부 여행-참회의 길을 걷다 / 전성표

160호, 2016. 11-12

- 여는 그림 : 박근혜 즉각 퇴진! 청와대 앞 100m / 유영재
- 논평 :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한 평통사 논평



- 평화행동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1인시위에 나선 ‘소녀상’ 작가 김운성 회원 /김영재
- 세상툴아보기 : 일본의 재침략 부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박기학
- 사드가고 평화오라 : 성주 촛불 155일, 초전면 이종희 위원장의 자유발언 “국가안보는 저네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종희
- 노동 : 한상균은 무죄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유죄 선고 규탄 논평
- 현안 : 2017년 국방예산 분석-비리와 낭비, 평화위협으로 가득한 국방예산 /조승현
- 사람 : 국방부가 소송 건 만화 ‘사드배치의 진실’ 작가 이진석 회원을 만나 /이주은

161호, 2017. 1



- 여는 그림 : 촛불 민심은 사드배치 철회! /조승현
- 기고 :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도흠
- 사드가고 평화오라 :
- 성주 촛불 200일 기념 시집을 펴내며 - ‘성주가 평화다’ /김충환
- 사드 배치 철회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 성주 소성리를 가다 /황윤미
- 더불어민주당 당사 농성을 시작하는 성주 · 김천 · 원불교의 입장
- 사드배치부지 선정과 계약을 둘러싼 국방부와 롯데의 검은 뒷거래 의혹 /조승현
- 평화행동 : 롯데 사드부지 제공 중단 롯데백화점 앞 1인시위 사진모음
- 세상툴아보기 : 지구상에서 가장 대미 종속적인 한미 통합 BMD 체계 /고영대
- 회원마당 : 전국 청년 평화캠프 참가기 - 서울에서 만나는 평화 통일 /김인선

162호, 2017. 2



- 여는그림 : 사드 ‘원천무효’ /오미정
- 여는글 : 촛불시민혁명과 사드배치 철회의 길 /권정호
- 국회 토론회 지상중계 :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승현
- 세상툴아보기 : 법적 근거 없는 사드 배치 합의와 국회 동의 필요성 /고영대
- 성명 : 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배치 중단하라!
- 노동_칼럼 : 용산역 광장에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자 /한상진
- 현장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사세보-이와쿠니 평화발자국 /박석분
- 회원마당 : 일본 평화발자국 참가기 /오승아, 홍슬민
- 23차 운영위원 총회 : 나의 한걸음으로, 사드 배치 · 한미일동맹 저지하고 평화통일의 새 날을 열자!

163호, 2017. 3



- 논평 :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평통사 논평
- 여는글 : 헌법수호 의지도 없었던 그녀가 국가안보 의지인들 있었을까? /황동환
- 사드가고 평화오라-3.18 소성리 평화발걸음 참가기 :
- 연대의 힘은 아름답다 /지희준
- 한 걸음 한 걸음, 기필코 사드저지 /정수경
- 소성리의 봄 /김수상
- 세상툴아보기 :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과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불러올 한미일 통합 BMD체계 및 군사동맹 구축과 동북아 집단방위 /고영대
- 해외평화운동 :
- 미국 평화활동가들의 사드 반대활동 /Zoon in Korea, Stop THAAD Task Force
- 도쿄 미대사관 앞, 한미군사연습(KR/FE) 항의행동 /나가야
- 현장 :
- 진천군민 ‘미군 훈련장 절대 안돼’ /조주형
- ‘부산을 평화의 도시로!’ 미 핵항모 칼빈슨호 입항 반대 활동 /박석분
- 강정마을회 성명서-평화의 섬에 파국을 몰고 올 미 해군의 입항을 거부한다
- 사람 : 군산평통사 박운옥 부대표를 소개합니다 /홍보팀

164호, 2017. 4



- 여는 그림 : 촛불의 민심을 들어라!
- 세상툴아보기 :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박기학
- 기고 : 선거민심 지켜내는 촛불시민혁명-한반도 전쟁위기와 2017 대통령선거 /이부영
- 사드가고 평화오라 : 지금은 비상상황! 온몸으로 사드 막겠다 /유선철
- 소성리 지킴이 일기 /유영대
- 왜관 미군기지 앞 평화행동 /강윤미
- 성주, 김천, 왜관, 장날을 돌아다니다 /이미경
- 해외평화운동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교토·이와쿠니 평화행동 /나가야
- STOP! THAAD IN KOREA 미국 평화순회 강연회 /이주연
- 노동_칼럼 : 사드 저지 투쟁도 노동자들의 몫 /박석민
- 허세욱 열사 10주기 : 세욱이 형을 그리며 /신재훈
- 사람 : 효순·미선 15주기, 그림으로 새기는 두 소녀를 만든 작가들 /박석분
- 회원마당 : 평통사 인턴 일기 'SHOW ME THE 인턴!' /오승아, 이늘봄, 이기훈, 이예슬

165호, 2017. 5



- 여는 글 : 사드 철회를 통해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문규현
- 현장 :
- 사드 저지 투쟁의 최전두에 선 소성리 임순분 어머니 /길바닥평화학교참가자
- 소성리에서 '평화'를 배우다 /박성우
- 사드 막으러 소성리로 온 사람들, 평화캠프촌 이모저모 /김강연
- 미국은 사드배치 강요 말라 _ 포틴저 미국 백악관 보좌관 방한 대응 기자회견문
- 세상 퉁아보기 : 자위대의 평시 미 군함 방호와 그 위험성 및 불법성 /박기학
- 효순 미선 15주기 :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살 사건 15년, 추모비 설치와 평화공원 조성 의미 /박석분

166호, 2017. 6-7



- 여는 글 :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길을 뚫고 있는 성주 소성리로 모읍시다 /황동환
- 현장 :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김민성
-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럼프! /김가현
- 현안 :
- 평통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한 성명
- 대법 무죄 확정 판결 경과와 의미 /유영재
- 사람 : 나는 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이 되었나? /정수태
- 세상 퉁아보기 :
-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 문재인 정부는 전향적인 사고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복원하라 /문홍주
- 미국과 중국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맡겨놓아도 되는가? /박기학
- 서평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다시 계산해보니 /한승동
- 효순 미선 15주기 :
- 효순아, 미선아!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박나타니엘
- 추모공원 첫 삽 뜬 효순 미선 15주기 추모제 /김강연
-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살 사건 진상규명 활동 주요 경과와 쟁점 /박석분

167호, 2017. 8

- 현장 : 2017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 여는글 : 한미연합연습과 북핵미사일 실험의 동시 중단이 절실하다! /유영재
- 논평 : 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중단하라!
- 특집_7.26 소성리 집회 :



- 정전협정 체결일에 즈음한 평화메세지-성주 종교인 평화기도회 /김희중
-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전쟁을 끝내고 평화에 살자! 소성리 수요집회 참가기 /장해영, 이하선, 박영리 등
- 회원마당 :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공개 편지 /유영재
- 현안 : 부산 도심에서 미군 총포연습이라니.. /박석분

168호, 2017. 9



- 현장 : 사드가 소성리를 짓밟고 들어간 날
- 평화는 지지 않는다! /이석주, 임순분, 박태정
-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황동환
- 사진 : 18시간, 그 후
- 잊지 않기 위해 남깁시다 /조은학, 신재훈, 정덕인, 손기종
- 소성리의 밤 /김동건
- 특집_故 조영삼 열사 :
 -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 선종 애도 성명
 -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故 조영삼
 - 추모시 : 평화의 바다로 먼저 가신 님께 /고희림
 - 사진 : 시민사회장 현장 / 남겨진 이들의 다짐
 - 현장 : 제주 군사기지화
 - 미국의 군사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강정지킴이들의 활동 의미 /최성희
 - 또 하나의 강정해군기지 성산 제2공항, 강원보 집행위원장 인터뷰 /김강연
 - 기획_2018 국방예산 분석 :
 - 국방개혁과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내년도 국방예산안 /박기학

169호, 2017. 10



- 여는그림 : 평화는 지지 않는다!
- 여는 글 :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 /이재호
- 기획 :
- 핵에는 핵으로? 틀렸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 몇가지 쟁점들
- 반전반핵 미사 열려... /김강연
- 핵무기 금지조약, 핵 억제론의 허와 실 /아사이모토무미, 성재상
- 특집 :
- 사진 제1회 홍근수평화통일상 시상식
- 제1회 홍근수평화통일상을 소성리 주민들에게 드리며 /고영대
- 회원마당 : 개성공단, 다시 살려내자! /조한웅

170호, 2017. 11-12



- 자료 : ‘트럼프 대통령 국민 방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규탄 논평
- 삼보일배 평화기도
- 삼보일배 평화기도 : 삼보일배 평화기도에 나서며 /문규현
-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희준
- 법원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평통사 논평
- 현안 :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 논평
- 현장 : 사드, 임시배치라면 공사 중단해야 /평화회의 입장, 이주은
- 미 핵잠수함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전국회의 입장, 조약골
- 성산 제2공항도, 강정 해군기지도 안돼 /이주은, 김경배
- 중앙소식 : 평통사 워크숍,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분석 :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트럼프를 이기는 방법 /박기학

171호, 2018. 1



- 여는 시 : 강철 나비의 꿈 /서덕석
- 칼럼 : 봄길 따라 편지라도 주고받으려면 /신정길
- 칼럼 : 2018년 새해, 평통사에 바란다 /권정호
- 기획 : 국방개혁과 국방예산, 군축_평통사의 정체성을 찾는 청년들 /윤승하, 이기훈
- 특집 :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로 핵대결 막아야 /박기학
-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핵선제공격을 막기위한 미국 의회 및 시민의 견제 /박기학
- 핵무기 금지조약의 의미와 한계 /김예숙
- 평화를 위한 기반_교회는 핵 체제와 핵 억제론을 거부한다 /로버트 맥엘로이
- 사람 : 19개월째 미대사관 앞 1인시위하는 서울 노동분회 /장남희 등
- 현장 : 김천 촛불 500+5일을 맞는 결의문_2018년을 만드시 사드 뽑는 해로 만들자! 사드 저지 투쟁, 한 해를 돌아보다_소성리 임순분 부녀회장님을 만나 /이주은 등
- 회원마당 : 소성리 주민 분들, 건강하세요! /허명석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강의를 듣고 /김종희
-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소송피해자 송년간담회에 다녀와서! /배종열

172호, 2018. 2



- 정세 : 2018년 정세 전망과 우리의 과제 /오혜란
- 기획 : 2018년 우리는... /김찬수, 김판태, 정동석, 박석분, 강수혜
- 회원마당 : 합천과 소성리 기행에 다녀와서 /이우성, 산마을학생들
- 특집 : 핵억제론의 심각한 10가지 결함 /크리저, 고영대
- 핵무기금지조약과 우리의 현실 /김예숙
- 맥엘로이 주교의 ‘평화를 위한 기반’을 읽고 /윤승하
- 사람 : 소성리 최장기 지킴이 자문자답 인터뷰_소성리 사드 투쟁 1년, 그리고 2018년 /강현욱, 김영재
- 지역 : 나주평통사 창립에 부쳐 /이정훈

173호, 2018. 3



- 정세 : 3.6남북합의, 3.8북미합의 이후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전망 /오혜란
- 자료 : 특사 방북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
- 3.24 평화촛불 :
 - 평화 촛불의 합성을 준비하는 부산 사람들 /강문수
 - 평화의 길에서 최대 수혜자는 아이들
- 총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 평화촛불을 결의한 24차 운영위원 총회 /오미정, 이기훈, 서종환
- 2017년 사업 평가 보고 /지희준
- 2018년 사업 계획 /김강연
- 현안 :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차 협상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기고 : 역사에 정의를, 4·3에 정명을! - 70주년 4·3항쟁을 맞으며 /박찬식
- 회원마당 : 부산평통사 평화발자국, 제주에서 2단계 사업 첫 발 /도라지
- 1990년대 초 팀스피릿 훈련 중단과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선순환을 돌아본다. /이기훈

174호, 특별호



- 정세 : 특별호
- ‘3.6 남북합의’와 ‘3.8 북미합의’의 의미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전망 /고영대

175호, 2018. 4-5



- 정세 : 4·27 '판문점 선언'의 의미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전망 /고영대
- 현장 : 소성리에 봄이와야 진짜 봄
- 자료 :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
- 평화촛불 : 평화촛불을 든 청소년들 /황윤미, 이주은
- 회원마당 : 평화의 섬 제주에서 배운다 /도라지
- 사진에세이 : 호수에서 잠시 머물다 /김성한
- 현안 : 방위비분담금, 대폭 줄일 수 있다 /박기학

176호, 2018. 6



- 정세 :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의 의미와 향후 정세 전망 /고영대
- 자료 :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
- 평화촛불 /서종환, 정수미, 도경임
- 회원마당 : 새벽 /조창익
- 현장 : 효순미선 16주기 추모행사 /김민성, 조아진
- 회원마당 :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 다녀와서 /이기훈
- 사진에세이 : 한발짝만 움직여도 /김성환
- 현안 : 방위비 분담금 대폭 늘리라'는 미국... 정부는 협상전략 전면 수정해야! /윤승하

177호, 2018. 7-8



- 사진에세이 : 73주년 8.15를 맞이하며 /김성한
- 7.28 평화홀씨마당 :
- 정전 65년,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시대의 주인으로 나서자! /문규현
- 새로운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대를 주동적으로 맞이합시다! /김수영, 김용호
- 7.28 평화홀씨마당 이모저모 “충을 내려라! 평화가 춤춘다! 통일이다” /정수미, 서종환, 강윤미, 이상진, 이도흙, 강문수
- 현장 : 청년, 제주평화기행 /이기은
- 자료 : '국방개혁 2.0 기본방향' 확정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 회원마당 : 이제는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할 때다 /이기훈

178호, 2018. 9-10



- 사진에세이 : 흐르는 역사와 달리는 기차길 /김성한
- 현안 :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는? /오미정
-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시대, 노동자민중이 주역이 되어야 /김강원
- 현장 :
- 사드 추가 배치 1년에 즈음한 청와대 앞 평화행동 /송대근, 김중희
- 회원마당 :
- 부산평통사 이명옥 신입회원을 만나다 /박석분
- 청소년 평화캠프 참가기 /김인아, 최혜성

179호, 2018. 11



- 권두언 : 평화 · 번영 · 통일의 새 시대, 진보진영과 평통사의 과제 /고영대
- 논평 :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평통사 논평
- 사진에세이 : 가을 /김성한
- 교육자료 :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위한 가교 /고영대
- 현안 :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한미 방위비 협상 /박기학
- 논평 : 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 논평
- 회원마당 : 고 흥근수 전 상임대표 5주기 추모제 /박철주
- 현장 : 제주 국제관함식 중단 촉구 평화행동 /이기훈, 최성희

180호, 2018. 12



- 추모_자주평화의 한길 고 김판태 군산평통사 대표 49재 - 발자취, 조사/문규현, 고별사/유영재, 사진으로 보는 김판태 대표의 삶, 전북시민사회장, 할복 때의 나의 의지는 평생 운동해 나가는데 좌표/ 김판태, 김판태 대표를 추모하며
- 현장_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정용진
- 사진에세이_ 오늘 당신과 함께 할 책은 무엇입니까? /김성한
- 현안_2019년 국방예산(안) 삭감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조승현
- 시_비무장지대 고라니가 하는 말 /서덕석
- 회원마당_절망과 폭력에서 희망과 평화로 /김득중
- 청년마당_2018 수도권 청년학생 평화아카데미 /김인아 이기는

181호, 2019. 1



- 여는이야기_자주평화의 촛불로 새 평화 · 번영 · 통일 시대 주인으로 나서자 /문규현
- 새해특집_새해도 지난해처럼! /강정구,
- 2019년 기해년에도 함께합시다!
- 2019년 기해년 다짐합니다!
- 현안_대폭 오른 2019년도 국방비, 평화정세 역행하고 국방개혁도 외면! /오미정
- 사진에세이_평화의 2019 /김성한
- 자료_한미연합사 용산기지 잔류 논란에 대한 평통사 논평
- 시_벽찬 바람과 열린 빛으로 /안학수
- 현장_평화시대 사드 빼! 통일시대 미군 빼! 불법사드 철거하라! /이기는 오미정

182호, 2019. 2



- 3·1운동 100주년 특집_3·1운동 100주년을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의 계기로 삼아야 /오혜란,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문규현
- 시_희망 /이순일
- 논평_역대 최악의 굴욕적 협정인 10차 방위비 분담협정은 전면 재협상 되어야
- 현안_한국 방어와 무관한 작전지원비용 제공? /이주은
- _사드 운영유지비도 우리가? /김영재
- 제안_창립 25년을 맞는 평통사의 과제 /오혜란
- 사진에세이_제주 이호태우 해변에서 /김성한
- 현안_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라! /이기훈
- 회원마당_굴뚝 위 834일, 고공농성 이야기 - 파인텍 차광호 동지를 만나 /이주은
- 청년마당_전국 평통사 청년 네트워크를 시작하며 /김인아 유수진 홍영애

183호, 2019. 3-4



- 논평_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평통사 논평
- 총회소식_평화 · 번영 · 통일 시대의 마중물이 되자! 새 평화세력 찾아내자!
- 회원마당_부산평통사 창립 10주년 기념 프로젝트 부산을 비핵 · 평화 도시로! /박석분
- 사진에세이_학교운동장 가운데에 서서 /김성한
- 현안_〈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역대 최악의 굴욕 협정〉 미국의 무도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더 이상 굴복해서는 안 돼 /오미정
- 현안_사드 빼고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할 것 /송대근
- _사드 정식배치라는 '악마의 맷돌'이 다시 돌기 시작한다 /강현욱
- 청년마당_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이기열 서울 부회장과의 첫 구술채록 /김인아

184호, 2019. 5



- 특집_정세와 과제 - 자주 평화의 촛불을 높이 들시다! /문규현
- 현장_아름다운 땅, 전쟁 없는 땅 물려주고 싶습니다 /임순분
- 현장_소성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김영재
- 현장_사드 없는 한반도가 진정한 평화_9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참가기 /강윤미
- 현안_사드 배치와 부지 공여의 위법성_소송 제기를 위한 메모 /고영대
- 추모_당신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_허세옥 열사 12주기 추모제 참가하며 /함수연
- 현안_방위비분담금의 해외미군 군수지원 진상규명-국민감사 청구 /오미정
- 자료_집시법 11조 탄압 이겨온 미대사관 앞 집회 /유영재
- 사진에세이_기이하게 생겼다고 보는 생명체 - 괴물 /김성한
- 청년마당_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의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 /유수진

185호, 2019. 6



- 현안_미국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하라! /김종수
- 평화의 새 시대를 이뤄나가는데 노동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변희영
- 특집_비핵 · 평화의 동아시아를 구축하자! /고영대
- 한국과 일본의 비핵 · 평화의 확립-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고영대
- 효순미선 17주기_드디어 미군추모비를 옮기고 시민추모비를 세우다 /박석분
- 청년마당_원폭 2세 고 김형울 추모제를 다녀와서 /배규동
- 청년마당_한국 원폭피해자 문제를 알리다1 /구가연
-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를 알리다2 /노승연
- 국제연대_핵 없는 세상을 향한 활동 흐름 /박하영
- 사진에세이_보이는 것과 가려진 것 /김성한

186호, 2019. 7



- 논평_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 평화행동_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에 즈음해 삼보일배 평화행동에 나서며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 단계적 실현 천명하라! /김찬수
- 사드는 평화를 해치는 무기입니다 /이석주
- 가장 빛나는 실천을 경험하다 /김은주
- 현안_미국은 유엔사 강화 중단, 해체하라!
- 기고_한국 원폭피해자, 미국에게 사죄 · 배상을 묻다 /이남재 이규열

187호, 2019. 8



- 현안_미국의 세계전략 이행 비용 한국에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
- 현안_미 · 중 전략안정 파괴하고 중 · 러 핵타격 불러올 중거리 미사일 배치
- 자료_미 · 러 간 핵군축 역사를 돌아본다 /이기훈
- 성명_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자행에 대한 평통사의 규탄 성명
- 칼럼_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촛불을 들자
- 현장_'사드기지' 공사 재개 중단하라!
- 사진에세이_리듬을 읽자 /김성한
- 정세대담_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대화 전망 /오혜란
- 평화홀씨마당_후진 66년, 평화 · 번영 ·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
- 평화행진_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김중희
- 청년마당_한국 원폭피해자 구술채록캠프를 다녀와서 /김민준

188호, 2019. 9-10



- 현안_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라!
- 현안_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해야 /유영재
- 비핵_핵무기금지조약(TPNW)과 한반도의 비핵·평화 실현 과제 /오혜란
- 핵무기금지조약 관련 용어설명
- 자료_핵무기금지조약(TPNW)
- 비핵_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파트너십 단체로 가입하다 /박하영
- 기고_2020 국방예산안 대폭 증액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 설득력 없어! /오미정
- 현장_독립운동 못했어도 사드철폐 투쟁 함께 합시다 /유정섭
- 효순미선 평화공원_효순미선 전국 순회 콘서트에 나서며/ 박석분
- 청년마당_깨닫고 움직인다면 세상은 바뀔 것 /김수현
- 사람_새 평화시대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꿈꾸며 /김강연 이주은
- 회원마당_회지는 나의 실천 의지 자극제 /김규연
- 사진에세이_안개속/ 김성한

189호, 2019. 11



- 논평_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결정에 대한 평통사 논평
- 현안_세계패권비용 노리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조원 요구 /유영재
- 논평_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 평화행동_미국은 미국방어와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한국을 동원 말라
- 만화_방위비분담금 협상 50억 달러의 진실 /이진석
- 평화행동_미대사관 앞 집회-평등한 한미관계를 촉구한 20년의 외침 /임순분
- 현안_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개정 협상 거부하고 한미동맹 새판짜기에 나서야!
- 사진에세이_롤러코스터 같은 길/ 김성한

190호, 2019. 12



- 사진에세이_1년을 돌아보며 /박하영 오미정
- 현안_줄속타결 우려커지는 방위비분담 협상, 그래픽과 문답으로 알아보는 쟁점 /유영재 오미정
- 한국원폭피해자문제
_원폭피해자와 함께 한 송년회 /박하영 오미정
_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를 교황에게 전달하다 /박하영
_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 /이규열
_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이기는
_교황, 나가사키에서 핵무기없는 세상 호소/핵무기 금지조약 가입 서명운동 제안
- 2019 평화아카데미_“해방 74년, 우리에게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인아
_평화흙씨를 퍼트리다 /유수진

191호, 2020. 1-2



- 특집_새해에 바란다
- 기고_한국 원폭피해자의 아픔을 언급한 프란치스코 교황 /강우일
- 현안_한국의 '중항공모함'도입, 과연 타당할까? /이기훈
- 논평_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관련 평통사 논평
- 회원_합천 원폭피해구술채록캠프 참가기 /이애지
- 자료_핵무기금지조약(TPNW) 전문

192호, 2020. 3

- 특집_2020 운영위원 총회 보고 /황윤미
_2020년 사업 기초 /오혜란
_회원들의 올해 다짐 /박해철 김경수 이도구 정서운 김경남
- 특집_원폭 피해 75주년



- “비핵 고베 방식을 배운다” -부산 평통사 세 번째 일본 평화발자국 /도라지
- _비키니데이를 아시나요? /김인아
- _핵무기에 관련한 교황의 권고 번역 /지성용
- 특집_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_가랑비에 옷 젖듯 평통사도 노래처럼 젖어들게, 박봉규 회원을 만나다 /박석분
 - _그래도 뚜벅뚜벅 - 소성리에 다녀와서 /권규녕
 - _김창환 선생님과 이종필 대표님을 그리며 /배용한 유영재
 - _리영희 선생님 가르침에 따라... /유영재 오미정
- 자료_사드 이동·추가 배치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비로의 전용 관련 청와대 질의서

193호, 2020. 4



- 방위비분담금_방위비 분담 명목으로 기어이 40~50억 달러를 뜯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 규탄!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폐기하고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하라!
- 비핵평화_핵무기금지조약과 핵비확산조약, 그 상호관계 /NPT&TPNW 연구모임
 - _세계 평화운동 동향 : 핵무기금지조약 대한 ‘도시들의 호소(Cities Appeal)’ 운동 /NPT&TPNW 연구모임
- 특집_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_허세욱 선생님과 효순이 미션이의 해후를 바라며 /황윤미
 - _사고현장에 떨어진 운동화 한 짝, 그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꽃, 올해 효순미션평화공원이 완성됩니다. /박석분 김은주
- 미군기지_대구경북지역 기지감시대응 활동-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를 중심으로 /김영재

194호, 2020. 5



- 평통사 20장면+_2015년 ‘위안부’ 야합 규탄
- 정세_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 중재자 아닌 당사자가 되어야 /고영대
- 비핵평화_우리는 지금 왜 김형률을 기억해야 하는가 /권규녕
 - _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 /NPT&TPNW연구모임
- 현안_방위비분담금 53% 인상도, 13% 인상도 터무니없다
 - _한반도 평화와 역행하는 그레이 이글-ER 배치계획 철회해야 /조승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_내가 변하고, 친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김인아
 - _민들레 홀씨를 퍼트리는 바람처럼 -평통사 활동을 하게 된 계기 /이훈
- 특집
 - _효순미션 평화공원_효순미션 사건 경과와 과제 /박석분 유영재
 - _“이게 평통사의 힘이구나!”, 회원의 힘으로 만드는 효순미션 평화공원 /김은주

195호, 2020. 6



- 특집_효순미션평화공원_추모시_56번 지방도 /송경동
 - _자주평화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효순미션 평화공원 완공 /유영재
 - _효순미션 평화공원은 자주적인 한반도를 만들어갈 산 교육장 /권정오
 - _자주 평화 통일의 꿈으로 다시 피어날 효순이와 미선이 /변혜숙
 - _완공된 평화공원에 와보니... / 회원들
 - _친애하는 한국 친구들에게 /앤라이트
- 정세_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즈음해 남북 당국에 드리는 글
- 역사_평통사 청년 활동가로서 맞는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 /이기훈 김은주 이우성
-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_그리운 고 박종섭 대표님께 /정동석
- 미군기지_군산미군기지 현황과 문제점 /박운옥

196호, 2020. 7-8



- 평통사 20장면 + _사드배치 저지투쟁
- 특집
 - _휴전 67년 평화협정 체결 촉구
 - _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짐과 축제의 장, 홀씨대회에 참가하며 /이애지
 - _7.25 평화홀씨대회 소감과 이모저모
 - _평화홀씨대회 낭송시 /안학수
 - _평화홀씨대회 발언 경연 수상작 /김중희 박점숙 변혜숙
 - _민(民)의 평화협정 선포에 부쳐 /신승민
 - _민(民)의 한반도 평화 선언문 의미와 과제 /오혜란
 - _평통사 평화협정(안)
 - _청와대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평양 선언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
- 현안
 - _사드 장비 반입의 진상
 - _국방부, 정령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고영대
 - _사드 장비 반입의 진상: 사드 성능개량과 시험·훈련 등

197호, 2020. 9



- 평통사 20장면 + _한국원폭피해자와 함께 미일 정부의 책임을 묻다 /오혜란
- 현안
 - _한반도 재침략 위한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박기학
 - _문재인 정부는 즉각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철도 연결에 나서라
 - _영평 로드리게스 미군 훈련, 한국인은 언제까지 피해를 당해야 하나? /정용진
 - _2021년도 국방예산(정부안) 국회 제출에 즈음한 평통사의 논평
- 회원
 - _운동화 속에서 촛불로 피어난 평화 /권정미
 - _곧잘 흔들리던 나를 굳건히 세우게 하는 힘 /유은정
 - _우리는 올바른 목소리로 더 바쁘게 움직일 거야 /이호준
 - _느리고, 더디지만 손편지로 마음을 나누고 있는 인천평통사 /유정섭
 - _좌충우돌 유튜브 촬영기 /이우

198호, 2020. 10



- 평통사 20장면 + _평화의 촛불을 들다
- 현안 _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기자회견문
- 번역 _일본자위대의 미사일 건설 반대 /성재상
- 회원 _평통사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기훈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_그리운 홍근수 목사님께 /황윤미
 - _자주평화의 한길 고 김판태 군산 대표 2주기 추모제

199호, 2020. 11



- 평통사 20장면+ _“대북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삼보일배 행진을 하던 날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다
- 현안
 - _군사적 효용성 없는 항공모함 도입 중단해야 /이기훈
 - _황산을 김제시민의 품으로! /박석분
 - _미군 열화우라늄을 우리 비용으로 우리 시설에서 대량으로 보관한다고요? /정용진
- 회원 _평통사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박하영
- 2020청년평화아카데미
 - _전쟁과 분단의 상흔 위에서 자주 평화 통일을 다짐하다 /김은주
 - _주체가 되어서 이야기한다는 것 /정서윤

♥ 광주평통사

회원 집중 교육



12월 1일(화), 회원 집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양연우 운영위원이 발제를 맡아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온전히 환수'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으로 회원 스스로 공부해서 발제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해보니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집중 교육에도 운영위원들이 직접 자료를 준비하고 발제하기로 했습니다. 회원들의 주체적인 학습을 통해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 정동석 |

♥ 광주전남지역

회원 집중학습



12월 1일(화), 광주, 12월 7일(목) 나주, 12월 8일(화) 해남, 12월 10일(목) 목포, 12월 14일(월) 순천을 마지막으로 2020년 광주 전남지역의 회원 집중 학습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의 평화협정(안), 사드 성능개량의 문제점, 대북제재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도 집중학습에 꾸준히 참여해준 회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에도 학습과 실천을 통해 자주·평화·통일의 길에 조금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 정동석 |

♥ 논산평통사(준)

11월 평화행동 및 월례 모임



11월 19일(목), 장군마트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시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대속에서 국방예산 삭감을 주제로 손 피켓을 들고, 서명도 받았습니다. 정은선 회원이 즉석에서 제안한 “무기로 평화 살 수 없다”는 구호를 함께 외쳤고, 윤여진 회원의 제자들이 서명에 참여하여 하기도 했습니다.

11월 월례 모임 및 집중 학습



11월 월례모임에서는 대북제재 관련 학습을 진행하고 오용석 회원이 직접 만든 빵을 먹으며 따뜻하고 밝은 평화행동을 기획해보자는 제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12월 5일(토), 마지막 회원 집중 학습에는 평통사의 역사를 배우며 논산 평통사 창립을 위한 다짐도 하였습니다.

♥이번 달 새로운 회원은 이택현님입니다♥

| 변혜숙 |

♥ 군산평통사

소성리 수요 집회



11월 11일(수), 박운옥 대표와 최소영 운영위원이 '사드 레이더의 성능개량을 위한 장비 반입 규탄' 소성리 수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사드 레이더 성능개량과 장비 반입은 미국의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한국인을 희생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수요 집회에 모인 소성리 주민과 평통사 회원 그리고 연대자들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이날 재개되었던 소성리 수요 집회는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 되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바닷길을 여는) 즉각 결정' 집회



11월 24일(화), 군산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 위원회는 해수유통 즉각 결정하라'는 요구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갯벌과 바다의 가치를 몰랐던 어리석음과 탐욕에 눈이 멀어 풍요와 생명의 상징 새만금을 죽인 지난 과거를 반성하며, 이제라도 새만금을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해 바닷길을 여는 해수유통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최소영]

♥ 대구평통사

소성리 공사자재 반입 저지 투쟁



11월 27일(금), 코로나19 3차 유행의 위기 상황에서도 국방부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또다시 사드 기지 공사자재 반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주민과 회원 등 평화지킴이들은, 미군기지 완성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에 항의하고 이를 알리는 전화행동과 함께 현장에서 자재 반입을 막기 위한 투쟁에 힘을 보였습니다. 사드 장비배치 기도에 맞선 우리의 평화행동은 계속됩니다.

회원 집중학습



12월 12일(목), 회원 집중학습을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하였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연구위원의 작전통제권을 주제로 한 강의와 김강연 인천평통사 사무국장의 대북제재, 남북경협에 관한 내용을 줌을 통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작권 환수나 남북경협 재개 문제는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를 압박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임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지재]

♥ 부산평통사

거제도 신입회원 가입!



순천평통사 김경수 사무국장의 소개로 거제도에 살고 있는 박철현, 박재성, 허영숙, 김학남, 박정희 다섯 분이 평통사 식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거제도에서 회원들을 모아 모임도 갖고, 잘 준비해서 거제평통사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환영하고 응원해주세요~

부산&창원 청년평화아카데미



12월 16일(수), 온라인으로 부산 아카데미 <주한미군 문제, 부산의 눈으로 말하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평통사 회원 자녀들과 청년들을 포함한 10명의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생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이 있는데도 부산에서 이런 위험한 실험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난다”는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12월 21일에는 마산에 있는 청년가치팩토리 사무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청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카데미 2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으로 선출된 조형래 운영위원이 강사로 나섰으며, 이날 강의에 참가한 청년들이 평통사 회원으로도 가입해주었습니다! 부산청년아카데미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차범♥신수정 회원 결혼식



12월 5일(토), 신차범 운영위원과 신수정 회원이 결혼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시 잤아진 틈에 기습적으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축하해주신 고영대 대표님 등 전국 각지의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자아자 힘내자, 비대면 송년회



부산평통사의 연례 행사인 평화홀씨합창단 송년음악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독창, 듀엣, 시낭송, 3분 발언 등으로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12월 27일(일), 오후 5시입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행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신청: 010-4879-8511 박봉규 운영위원)

|유수진

♥ 서울평통사

회원 집중 학습



서울 평통사 운영위원과 노동분회원을 중심으로 한 회원 집중 학습을 격주 간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일)에는 대북제재를 주제로, 12월 10일(목)에는 방위비분담금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 시간이 되는 회원들과 함께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수)에는 대북제재를 주제로 진행했고, 12월 15일(화)에는 방위비분담금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일인시위는 계속됩니다



미대사관 앞 일인시위는 평일 한 시간씩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항공모함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12월에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각종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담은 청와대 분수대 앞 일인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 청년평화아카데미



1강, 현장탐방을 포함하여 모두 7강의 아카데미를 마쳤고, 12월 22일(화)과 30일(수), 두 강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22일(화)은 “왜 우리는 한국원폭피해자를 알아야 할까?”, 30일(수)은 “한반도 평화와 변영, 통일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황윤미

♥ 보령평통사

1인 시위 실천 활동



11월 17일(화), 25일(수) 양일간 보령 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한미동맹 현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 ‘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 등 그동안 회원 집중학습을 통해 알게 된 문제점들을 보령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회원들이 실천 활동에 나섰습니다.

|권진복

♥ 성남용인평통사(준)

오랜만에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과 일상회원 활동을 거의 못하다가 모처럼 산을 좋아하는 회원들이 마니산을 찾아가 산행을 가졌습니다. 체력 증진과 함께 소원하던 회원들이 자연 속에서 교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더 많은 회원들이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근교의 산 중심으로 트레킹을 하며 야외학습 기회도 마련해 보려 합니다.

|서덕석

♥ 순천평통사

11월 정기 공부모임



순천평통사 11월 정기 공부모임이 1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실상과 이러한 환경속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를 위해 할 수 있는 행위, 우리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목요일 실천 활동



매주 목요일 순천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되는 평화행동은 11월에도 계속하였습니다.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정착, 전대일3법 쟁취의 염원을 담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 익산평통사

온라인 회원 학습



코로나19로 활동이 움츠러든 가운데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판문점/평양선언 살리기와 그 의미, 방 안, 과제에 관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익산지역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하여 1인 시위, 집중학습, 송년회 등 많은 계획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 결의는 의연 하기로 합니다.

|조원일

♥ 대전충청모임

대전충청 지역 모임



12월 15일(토), 7명의 회원들이 모여 '바이든 당선 이후 한반도 정세와 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학습을 통해 미국 정부의 입장에 의존하기 보다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느냐의 중요성과 금강산 관광/개성공단/남북 철도 도로 연결이 곧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이행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실천방안을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하여 천안아산, 충주음성제천, 홍성에서도 ZOOM으로 모임을 진행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 등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유영재

♥ 인천평통사

2020 온라인 후원의 밤 '평화가 온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인천평통사 2020후원의밤>은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2월 12일(토), 오후 6시에 사전에 제작한 '평화가 온다' 영상을 유튜브 평통사TV를 통해 회원들과 후원자들에게 온라인으로 공유하였습니다. 200여 명이 영상을 시청해 주었고, 응원 댓글과 페이스북에 응원 메시지를 올려주는 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람을 모시려는 정성이 극진한 시민단체다. 남북 평화를 위한 군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 설득 능력이 탁월하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낯설어 하는 이들조차 고개를 끄덕이게 할 실력을 쌓아가려는 노력이 감탄스럽다" - 임병구 회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응원 글 -

♣후원의 밤 영상보기 <https://youtu.be/1wz9Si4eEkc>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에 십시일반 마음을 보내주신 회원들과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평화통일 활동 기금으로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동주 강한일 고춘화 구월공부방 김근자 김금옥 김기수 김미경 김병철 김보희 김성태 김시완 김영균한의원 김영승 김윤조 김은옥 김의균 김일희 김지수 김태영 김포성당 김형진 논현동성당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문경근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박기학 박순길 박순이 박영민 박옥희 박유순 인천보건의료노조 서경혜 서덕옥 서은철 선학동성당 소래포구성당 손선재 송정로 신나영 신현범 심신아 심자섭 안용국 영종성당 원웅 유경수 유한경 유현섭 윤화식 이경원 이은직 이정옥 이춘식 이현순 인천노점상연합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임동렬 임병구 정동근 정명숙 정송호 정희진 조경숙 조병규 심옥빈 조성혜 조인희 조재호 청라성당 청솔의집 프라도수녀회 플랜트노조경인지부 하성성당 한재수 홍학기 황병태 황현숙 (사)인천민주화운동 인천직(주)키즈플랜 최리주 이우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



12월 9일(수),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정부 노동개혁안 저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인천지역 기자회견에 김성태 공동대표가 참가하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하다 죽지 않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온라인 평화사랑방 정례화

코로나 상황에서 평통사 활동 내용을 나누고 실천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온라인 평화사랑방을 정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이 아닌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매주(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줌 화상회의 (*핸드폰에 줌zoom 앱을 설치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문의 : 010-5590-9134 사무국)

청와대 앞 1인시위 참여



12월 15일(화), 22일(화), 청와대 앞 1인시위에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1인시위에 김성태 대표와 김태정, 서은철, 유한경, 김보희 회원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와 매서운 추위에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천에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강연

회비와 후원금 (2020. 11)

중앙평동사

[임원 및 중앙회비]

강정구 고영대 권영선 권정호 김광진 김귀옥 김동완 김동우 김명래 김삼열 김성환
김용순 김점수 김진양 김태연 김형배 김효영 김홍수 노혜정 문규현 문홍주 박경수
박성복 박점수 배현철 변희영 안진걸 유영섭 이규영 이 규 이상진 이성호 이영민
이옥숙 이영영 이천우 임충철 장경록 정경훈 조상수 조은숙 최정민 최혜성 홍영진
황병대 황호영

[정기후원금]

김광열 들꽃향인 이현숙 양동일 전주남교회 조문자 조민희 하늘평화공동체
향린교회

[특별후원금]

김종희

광양평동사

김기필 김우선 김용순 김우주 박수완 박성일 배영일 서영환 신덕희 신유순 안성은
안정주 오종호 이금한 이영기 이인수 이상수 이장재 이종재 이희정 정인태 정일태
주경진 전덕미 최 열 천우주 황미경

광주평동사

강경식 강세용 강숙향 강은미 강정원 강지연 강춘원 고영민 고재환 구가연 권경희
기원주 김가영 김금례 김경민 김광종 김기남 김기만 김기현 김덕용 김덕우 김동열
김동우 김동호 김미숙 김미영 김민지 김미형 김민선 김민식 김민정 김범종 김병문
김삼철 김선미 김선호 김성룡 김세화 김수영 김수하 김 순 김순홍 김승식 김승원
김이영 김은정 김연배 김영석 김예지 김옥희 김용근 김용록 김용호 김 윤 김유빈
김은구 김은정 김은지 김재중 김 정 김점성 김정은 김중대 김중석 김중철 김진수
김진환 김태환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현태 김혜선 김해연 김홍길 김홍길 김화순
김효경 김희용 김희정 나윤상 노진영 노혜민 루기진 류승환 명경관 무동교회 문은미
박광희 박기철 박길원 박다현 박상욱 박상은 박상희 박석우 박선이 박성수 박수분
박승희 박수희 박옥연 박윤수 박일남 박재영 박정화 박종영 박종주 박종철 박지영
박준수 박현재 박형아 박호섭 박홍환 배무궁 배아영 배진하 백지은 변하연 박상진
서경순 서광진 서기웅 서부원 서상길 서수연 서일권 서정환 서진영 서현미 성창우
손민식 손수영 송규만 송기철 송문식 송미숙 송승주 송순교 송진환 신경구 신경희
신영호 신창남 안 민 안 석 안영숙 안효철 안다희 양 동 양민철 양성수 양승진
양연우 양해은 양혜주 연상호 오공희 오봉록 오승경 오정아 오창규 우승관 위유민
유원복 유시훈 유용열 유종현 윤문관 윤상호 윤우식 윤정현 윤종범 윤지숙 윤창자
윤태원 윤원식 윤영현 이근규 이경진 이경희 이계양 이광철 이교환 이귀임 이근호
이기문 이기형 이기호 이다혜 이도균 이매실 이미옥 이민형 이병석 이병일 이상호
이상호 이서연 이석주 이성계 이수경 이숙희 이영선 이영희 이윤미 이윤진 이용주
이우원 이윤정 이은수 이정옥 이지하 이지훈 이진덕 이철우 이태욱 이한수 이현수
이호은 이훈기 임광석 임대영 임미미 임성수 임세미 임종호 장관철 장덕자 장동식
장매란 장 요 장유리 장화동 전경일 전 정 전창훈 전택상 전정화 정규영 정길주
정동서 정록호 정보현 정성규 정성호 정세원 정수진 정순임 정시영 정유리 정종득
정종복 정찬형 정찬호 정천성 정현우 정형달 조규성 조명근 조봉훈 조선호 조성식
조용석 조정철 조현도 조효숙 주호숙 주경미 지영도 지희은 진중화 진재영 최경미
최기호 최동환 최영숙 최봉진 최선동 최영도 최영호 최은규 최정현 최충환 최치현
탁옥순 표경숙 표영민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기원 홍성대 홍영애 홍요한
황근택 황장권

군산평동사

강인준 강임숙 고광석 고대영 고동식 권태곤 권현숙 김경수 김국태 김남기 김봉록
김성덕 김성영 김성곤 김성수 김성훈 김수진 김소수 김정호 김태철 김형곤 나기학
나신환 남대진 문성국 문성주 문순임 문정숙 문지영 박갑구 박국현 박윤옥 배형원
서대식 서동환 선진숙 송래은 송상구 신동수 신수철 양기만 양은희 오금수 오선환
오주복 오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태 이계택 이명철 이명로 이봉호 이신희
이애란 이옥선 이재호 이종민 이지윤 이진우 이천우 이현주 이현철 이희정 임은숙
임은혜 임정원 임춘희 임홍연 장미애 정재순 천희남 정 민 정성빈 정옥진 정지숙
조경수 조성철 조현도 조효숙 조종주 조진호 조만철 문규옥(주호곤) 채영호 최광민
최경자 최소영 최은주 최응진 최이화 최재석 최진영 한정숙 현기석 황 진 신법철
김연태

김제평동사

김태정 김미라 김성봉 김성순 김승환 김영미 김영주 김익현 김진원 김진호 김창수
김창화 김형기 김형애 김형택 나인권 나현곤 남금옥 노경두 노규석 박기주 박영배
박원용 백장민 소광석 손은하 신동우 안진숙 오인근 유재홍 이소정 이소정 이용만
이우곤 이은경 이현숙 이희곤 정원문 정영국 정영호 하성애 황혜정

나주평동사

강현옥 김경호 김광덕 김남철 김민서 김병봉 김성보 김영민 김요섭 김한영 마대중
박신재 박성태 박정연 박철수 박철순 소 영 안보현 안희남 양이화 이동택 이 연
이운범 이재창 이재휘 이정훈 이현영 정재영 정만식 정소자 정윤자 정희남 조기태
조성희 최기춘 최진연 홍기숙 홍양현

대구평동사

강현옥 고경수 고윤희 고희림 광영은 구연우 구자숙 권순석 권오혁 권재호 권주연
금정호 김경화 김기옥 김기용 김대성 김덕기 김동기 김명환 김미란 김미정 김병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김성국 김수경 김승무 김명숙 김명숙2 김명은 김은주 김정미 김정수 김충희 김지남
김찬수 김호훈 나미숙 남미정 노영옥 문혜경 박배일 박성민 박소영 박순단 박순종
박영아 박영희 박재범 박주현 박철주 박태경 박태희 박형선 배소라 배연택 배찬호
백미연 설동현 손만철 신복식 신영도 신효철 안주연 안현수 양정희 오신택 오창섭
오해란 우정순 유은정 유은정2 유재복 유지주 유창열 윤화익 은영지 이근우 이기락
이기분 이기자 이도순 이도옥 이미경 이병수 이상규 이상술 이석문 이석주
이영훈 이은수 이재호 이정연 이종근 이종훈 이종희 이종원 이종식 이진권 이창주
이태광 이희일 임정국 장미숙 장성대 장재호 장재호2 장정자 전정훈 전호관 전희영
정명숙 정민규 정수경 정수영 정수태 정용숙 정종덕 조규천 조원근 조은학 조현정
주경복 차상혁 천영희 최봉태 최진영 최준식 최현정 하재철 함수연 하정호 허해남
황병윤

목포평동사

강성희 강 신 강원구 강현석 고정석 권혜경 권경희 김관일 김금숙 김기종 김나리
김동규 김무영 김민지 김석원 김애리 김명재 김용철 김중수 김중석 김지희 김창현
김현아 김호영 김희상 류경수 마상진 문성훈 문매준 문희정 박기철 박성준 박서근
박 웅 박종찬 박진경 박종성 박한글 백동규 변철진 서만철 서정일 소복례 소낙수
손민원 송원천 송철호 신재훈 신한중 안광미 양승미 양현주 여인두 엄금자 오순주
유지용 유준영 윤성현 윤소하 윤영성 이경수 이경훈 이구인 이미정 이보라미 이진재
이유이 이종환 이종희 이지용 이철배 이현숙 임동용 임원택 장금희 장문규 장미경
장세원 정석기 정성우 정영록 정영담 정지범 정찬길 조기택 조상현 조영규 조창익
진필순 최경민 최경식 최기종 최성숙 최은기 최진호 최철환 최 훈 한강희 한미경

보령평동사

고미숙 권기석 권순현 권진복 김기종 김세환 김양자 김영석 김은수 김정주 김중성
남미자 류남신 문춘환 백은영 상형규 서순희 신현영 안학숙 오무광 오미경 우장식
유성준 이덕표 이범석 이선숙 이영준 이용우 이재문 이정근 이정학 이종협 이준성
이학원 임성희 임수영 정수정 정정희 최병성 추동신 한광수 황순오 황태연

부산평동사

강문수 강문성 강용준 강자아 강한들 강노현 고승하 공명택 공소연 광광덕 광범철
광상진 권수진 권승환 권일 권일 권정미 권정환 김강일 김건우 김경태 김광수
김광주 김규연 김기래 김나영 김문근 김미경 김봉준 김봉현 김상기 김성수 김현
김여원 김연미 김영미 김명수 김명환 김영환 김명훈 김요아김 김용판 김유중
김은자 김은주 김은주 김재연 김점진 김홍미 김주희 김지는 김지영 김태정 김태훈
김진학 김해영 김해영 김현호 김해경 김훈규 남송우 남원철 남정희 남춘희 남태국
남태국 남태호 노정현 도라지 도용희 문배수 문상환 문준경 박석자 박다은 박복규
박선인 박성호 박숙임 박숙자 박숙한 박승호 박재택 박재성 박정일 박정하 박정희
박종근 박종진 박형준 변재욱 서금성 서금성 서유연 서종범 서진화 석혜진(배연임)
신기석 성은화 손기종 송정아 신경희 신상범 신석근 신수정 신승태 신연아 신자형
신한규 신창신 안승업 안종득 양윤정 양은희 양소호 양현호 양하리 엄병총 엄병총
여영국 연암스님 오문범 오종석 오태수 오태수 우수경 원형은 유수진 유재규
유홍희 윤경환 윤영숙 윤종근 윤종철 윤혜정 이강식 이기성 이덕순 이상남 이상익
이상철 이상철 이우영 이우성 이윤서 이윤희 이의석 이의희 이순일 이재민 이석수
이정숙 이진호 이창환 이태재 이학진 이혜선 임상민 장원자 장유달 장호봉 전나미
정상은 정영선 정영은 정원욱 정원숙 조광호 조성호 조형택 조성희 차정민 채희연
최무애 최병학 최봉태 최 진 탁도균 하경숙 하경숙 하지림 한기순 한석문 한소영
한홍규(스마트행복센터) 허남훈 허재복 황구과 황도용 황성순 황용재 황재관 황희경

부천평동사

강성진 강용환 구광숙 구자춘 구현모 권광한 권혁만 권희진 김경남 김덕근 김덕희
김동우 김미영 김석환 김성근 김성애 김성용 김성훈 김수철 김숙희 김숙희2 김용관
김용삼 김준호 김주영 김지숙 김현정 김현주 김혜영 노은하 류진남 문종환 민경진
박경원 박성진 박숙경 배영미 서순복 서혜숙 석의정 설정숙 성명은 손무수 손준옥
송기부 신용철 신정길 심영섭 오영균 유승우 유원희 윤용환 윤점미 윤종환 이도영
이병훈 이성우 이숙자 이영아 이윤영 이종주 이준희 이진희 이현구 이현원 임태원
임옥영 임종영 장영재 정근수 정미옥 정진숙 정성숙 정용진 정윤희 정현희 정희목
조기대 조숙희 종복숙 주영일 주영자 주정숙 지상철 지태봉 차성호 천소향 최희정
최정규 최희준 현지현 홍봉현 황영신 황희정 황익순 황종현 황송순

서울평동사

김 진 강대곤 강대준 강보형 강수혜 강양원 강영록 강우균 강윤미 강주산(2개월)
강하금 강효석 경영준 고영우 고영주 공동길 광노현 광원호 구승경 구자숙 권순형
권영무 권 옥 권장희 권재세 권지숙 권혁문 김경자 김경호 김중환 김윤열 김기수
김기수 김기원 김대성 김동훈 김현진 김광일 김미경 김미영 김상곤 김서론 김석근
김선희 김성연 김성훈 김수신나 김한순 김명균(2개월) 김명모 김명수 김명애
김명은 김명재 김명진 김명진 김문성(2개월) 김원복 김영숙 김유하 김은미
김은미 김은아 김익환 김인아 김재훈 김정미 김정미 김정원 김장자 김정현 김중일
김중환 김지수 김진근 김진환 김중례 김태준 김한성 김혜성 김해인 김창자 김현애
김현진 김화순 김희식 김후중 김현국 김현진 김희정 나해영(2개월) 남미영 남택우
류미아 류은숙 류호진 류희숙 류규호 문병모 문수정 문진진 문희정 민성희 민 영
민영미 박경태 박민서 박진정 박봉희 박상호 박술희 박민기 박우석 박문봉
박종기 박종양 박종민 박주연(2개월) 박진옥 박진희 박하영 박해철 박후인 박희성
방만식 배주희 배준실 변연식 변연희 서보혁 서영미 서유미 서인규 서진희 서정식
서창호 선소진 선순단 손영일 손우정 손윤희 손정목 송금식 송민영(2개월) 송상환

2020년 11월결산보고서 (2020.11.1~12.1)

수 입		지 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① 정기회비	31,781,000	① 인건비	13,165,000
② 정기후원금	1,100,000	② 운영비	6,400,680
③ 부정기후원금	100,000	보험료	50,000
④ 사업수입	4,440,000	복리후생비	1,802,760
⑤ 기타수입	2,313,300	비품비	650,000
⑥ 전월 이월액	4,851,754	사무용품비(소모품비)	493,920
⑦ 차입금		수도광열비	237,435
*수입 세부내역 ① 정기회비 : CMS(31,341,000원), 계좌(440,000원) ② 정기후원금 : 향린교회, 들꽃향린, 전주남문교회, 김광열, 하늘평화공동체 ③ 부정기후원금 : 김중희 ④ 사업수입 : 대관(서울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 유튜브모금(문규현 2,000,000원), 소성리모금 ⑤ 기타수입 : 광양 지역교부금 환급 (1750,000원), 송금오류 환불 등 *지출 세부내역 1)교육훈련비 : 임원 및 교육위원 집중교육, 대관, 교통비 등 2)도서인쇄비 : 회지 편집 및 인쇄 3)도서자료구입비: 자료구입 4)발송비 : 회지발송비 등 5)사업출장비 : 전주, 논산, 김제, 부산 등 6)실천사업비 : 기자회견, 소성리 사드반대 현장투쟁 7)연대사업비 : 사드현장지원, 전태일50주기 8)청년사업비 : 청년모임 진행 9)홍보비 : 페이스북 광고, 메일링 등 10)회원사업비 : 전남회원사업, 경조사 등 11)예비비 : 사무실 공사		세금과공과	40,000
		임대료	2,000,000
		정보통신비	259,580
		지급수수료	1,223,120
		차량유지비	80,000
		③ 사업비	8,809,282
		교육훈련비1)	1,296,970
		국제연대사업비	
		도서인쇄비2)	2,369,070
		도서자료구입비3)	74,300
		발송비4)	757,400
		사업출장비5)	941,950
		실천사업비6)	1,326,600
		연대사업7)	946,000
		행사진행비	
		청년사업비8)	331,900
		홍보비9)	191,442
		회의비	73,650
		회원사업비10)	500,000
		④ 지원경비	10,770,000
		지역교부금	10,180,000
		지역모임지원금	590,000
		자원활동가 지원금	
		⑤ 부채상환	
		⑥ 예비비11)	3,581,710
		⑦ 잔액(월말통장잔액)	1,859,382
합 계	44,586,054	합 계	42,726,672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계좌번호 :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0번길 46 2층
연 락 처 : 032) 671-7179 bcspark0601@hanmail.net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군산평통사

주 소 : 54077 전북 군산시 백릉안4길 6
연 락 처 : 010-4470-6065 박운옥

전주평통사

연 락 처 : 010-9590-1490 김영호

광주평통사

주 소 : 61245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43길 광주YWCA 605호
연 락 처 : 010-5610-5230 정동석 kj-spark@hanmail.net

순천평통사

연 락 처 : 010-7933-1581 김경수

나주평통사

연 락 처 : 010-3602-1849 이정훈

목포평통사

주 소 : 58684 전남 목포시 신흥로83번길 5 3층
연 락 처 : 010-9260-4863 김중수

해남평통사

연 락 처 : 010-5612-8125 박승규

안동평통사

연 락 처 : 010-9867-1599 배용한

대구평통사

주 소 :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연 락 처 : 053) 428-0727 dgspark@hanmail.net

부산평통사

주 소 : 47342 부산광역시 진구 신암로 177번길 2
연 락 처 : 051) 635-0964 bsspark@hanmail.net

성남용인평통사(준)

연 락 처 : 010-2462-1377 서덕석

김제평통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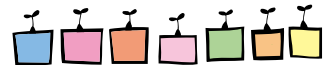
주 소 : 김제시 요촌동 서해화인빌 2동 702호
연 락 처 : 010-9957-7478 손은하

대전충청모임

주 소 : 34623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7번길 52 805호
연 락 처 : 010-3297-0568 유영재

무안모임

연 락 처 : 010-3645-2722 문영란



상임대표 문규현

공동대표 고영대 김병균 문홍주 박상희 변연식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감 사 박유순 안병순

지도위원 강정구 김순정 김영훈 명진 박순희 배종열 조주형 정혜열

지문번호사 권정호 김소리 김형태 남성욱 박주민 이남진 이덕우 장경옥

발행일 2020년 12월 28일

발행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인 문규현

주 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2층

전 화 (02)711-7292, (02)712-8443

홈페이지 www.peaceone.org

전자우편 spark946@hanmail.net

후원계좌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록번호 서울라 10482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03년 10월 9일

올 한 해에도 함께해 주신 회원님,
참 고맙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통사 회비를 내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평통사는 회원님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마중물이 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1년 1월 20일(수)부터

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발급 기준 :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CMS자동인출
또는 공식계좌(기업은행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로
회비/후원금을 내신 분들입니다.

* 문의 : 02-711-7292 (평통사 사무처)

